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26, Vol. 40, No. 2, 111-147
https://doi.org/10.21193/kjspp.2026.40.2.002

정규논문

한국의 '진보'와 '보수'는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가?: 정치가치 지지에 대한 잠재프로파일분석*

이 하 연[1] **최 훈 석**[2]† **박 주 화**[3] **이 지 영**[2]

[1]경상국립대학교 [2]성균관대학교 [3]북한대학원대학교

개인의 정치성향에 관한 사회심리학 및 정치심리학 연구는 자기명명식 정치성향이나 지지 정당, 이념, 현안 태도 등을 기준으로 개인의 정치성향을 규정해왔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개인이 신봉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정치성향을 연구함으로써 새로운 통찰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24년을 기점으로 국내 주요 정당(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정치가치 중시 양상을 확인하였다.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발견된 총 다섯 개 유형(프로파일)을 해석한 결과, 중도층과 분리되는 진보와 보수층이 각각 두 개의 세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다섯 개 유형에서 특수한 정치가치 중시 양상과 정치이념 및 태도 특성이 발견되었다. 이는 한국에서 진보 대 보수로 정치성향을 이분법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인들의 정치성향과 태도에 관한 후속연구 방향과, 정치 양극화 및 극단화에 관한 사회심리학 연구의 필요성을 논하였다.

주요어 : 정치가치, 진보-보수, 정치성향, 이념, 정서적 양극화

* 본 연구의 자료수집과 논문의 부록 작성을 도와준 성균관대학교 김하나, 김하얀에게 감사함.
†교신저자: 최훈석,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E-mail: hchoi@skku.edu

ⓒ 2026, Korea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어느 사회에서나 정치의 중요한 목적은 공동체 내 다양한 입장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소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국가를 비롯한 대규모 현대 공동체에는 국회나 정부와 같이 정치행위의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회 구성원들 역시 일상에서 다양한 정치행위를 통해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구성원들의 정치성향과 그에 수반되는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연구는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의 조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사회 구성원들의 정치성향에 관한 선행연구는 개인의 정치성향을 여러 방법으로 규정해왔다. 이 가운데, 정치성향을 대분하는 기준인 진보-보수 중 스스로 어느 성향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의미하는 자기명명식 정치성향(self-attributed political orientation)이 학술연구 및 여론조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진보-보수로 대표되는 정당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그리고 해당 정당의 지지자로서 얼마나 강한 정체성을 지니는지(정당정체성; partisan identity)를 정치성향의 지표로 삼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진보-보수성향과 상관관계에 있는 개인의 정치이념(political ideology), 도덕기반(moral foundation)과 같은 요인들도 제안되었다. 이처럼 정치성향을 진보-보수 태도나 정당정체성, 또는 이들과 상관되는 심리요인으로 규정하는 접근법과는 달리, 정치성향의 가치기반(value-base)에 주목하는 연구자들은 정치 영역을 포함하여 일상 전반의 신념과 태도, 행동을 조형하는 가치를 통해서 구성원들의 정치성향과 정치태도 및 행동을 설명하는 접근법을 취한다. 이 접근법은 가치가 개인의 사고 및 행동에 미치는 근본적인 영향(Roccas & Sagiv, 2017)에 주목하여, 특정 가치에 대한 지지가 정치성향과 정치적 신념 및 태도, 행위를 예측할 것을 전제한다. 또한, 다양한 요인으로 구성되는 가치를 기반으로 정치성향을 규정하는 이러한 접근법은 진보-보수라는 전통적인 구분만으로는 현대사회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정치현실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치성향에 관한 심리학 연구에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개인의 가치구조에 주목하여 한국인들의 정치성향과 태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어느 사회에서나 구성원들이 중시하는 다양한 가치요인이 존재하고, 개인이 특정한 가치를 지지하는 양상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가치는 신념이나 태도 및 행동 등 다른 요인에 선행한다는 전제(Schwartz, 1992, 2017)하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2024년을 기점으로 한국인들이 중시하는 정치가치를 조사하였다. 이 조사를 통해 서구에서 제안된 정치가치에 관한 이론적 가정(Schwartz et al., 2010)을 확장하여 한국의 정치환경에서 가치기반 접근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정치성향의 규정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주로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성향을 진보(좌파)와 보수(우파)로 구분한다(Conover & Feldman, 1981; Jost et al., 2008). 국가 및 공동체의 역사와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각 진영을 구성하는 세부요인이나 정치성향의 전개 양상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보수는 전통과 위계 구조에 기반한 질서 유지와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중시하는 성향을 보이는 반면, 진보는 개인의 천부인권과 그에 따르는 자유 및 사회경제적인 평등을 중시하는 성향으로 구분된다(Caprara & Vecchione, 2018). 이러한 진보-보수 구분은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정치성향에 관한 연구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예: 강원택, 2004; 최석만 등, 1991).

진보-보수성향에 관한 지배적인 이론과 정치현장에서는 진보와 보수를 일차원의 연속선상에서 서로 대립하는 개념으로 전제한다. 즉, 진보성향이 강한 것은 보수성향이 약한 것을 의미하

며 두 성향은 양립할 수 없다. 일부 실증연구에서 개인의 정치성향이 여러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개인 내에서 하위요인별로 진보-보수가 다를 수 있음이 관찰되기도 하였지만(예: 최석만 등, 1991; Ashton et al., 2005; Jost et al., 2003), 이 연구들 역시 각 하위요인에서는 진보-보수가 양극단에 위치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진보와 보수의 중간에 위치하는 성향은 중도로 해석한다.

정치성향에 관한 실증연구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의 정치성향을 규정하고 측정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자기명명식 정치성향으로, 응답자가 매우 진보적 그리고 매우 보수적으로 명명된 양극단에서 스스로 본인의 성향에 응답하는 방법이다(Jost, 2006). 이는 개인이 보편상식에 의존해 자신의 정치성향을 평정하여 측정이 간편하며, 외현적으로 자각된 성향이므로 다른 정치태도 및 행동과 상관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진보-보수의 의미에 대한 주관적 해석이 응답자마다 다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정치성향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이 다양할수록 이를 통틀어 하나의 성향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제약이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경제, 사회 영역을 구분하여 진보-보수를 측정하기도 하지만(예: Choma et al., 2012; Skitka et al., 2002) 이들 역시 추상적인 요인에 대한 자기보고식 응답으로써의 한계가 있다.

진보-보수를 규정하는 단면의 추상성을 줄이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가 현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다. 이 방법은 진보-보수로 양분되는 구체적인 의제(예: 복지 vs. 성장 우선, 사형제 유지 vs. 폐지)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을 묻고, 이를 종합하여 상향식으로 개인의 진보-보수성향을 규정한다(예: Feldman & Johnson, 2014; Henningham, 1996). 또 다른 방식은, 국가에서 진보나 보수로 여겨지는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정당정체성을 측정하는 것이다(Greene, 2004). 이 방법은 지지 정당에 따라 응답자의 정치성향이 구분되며, 스스로 특정 정당 지지자로 동일시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진보 또는 보수성향이 강하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정당정체성은 특히 양당 체제로 운영되는 국가에서 구성원들의 정치성향을 나타내거나 정치태도 및 행동을 예측하는 지표로 자주 사용된다(예: 윤성이, 이민규, 2011; Bai, 2024). 그러나, 여러 현안에 대한 태도는 한 방향으로 수렴하지 않거나 자기명명식 정치성향과 비일관되기도 하며(Feldman & Johnson, 2014), 현안에 관한 태도나 정당정체성은 정치성향에 수반되거나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Bai, 2024) 이 두 지표 역시 진보-보수의 간접지표 또는 결과로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사회적 신념 또는 정치이념을 중심으로 개인의 진보-보수성향이나 정치태도 및 행동과 상관되는 심리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도 다수 이루어졌다. 사회적 신념이란 사회구조 및 체제와 그 작동 원리에 대하여 개인이 옳거나 그르다고 믿는 일련의 신념 체계로 정의된다(Jost et al., 2009). 이 가운데 진보-보수와 상관되는 대표적인 신념(정치이념)은 우익권위주의(right-wing authoritarianism)와 사회지배경향성(social dominance orientation)이다. 우익권위주의는 전통적인 규범 및 가치의 고수와 권위주의적 신념을 의미하고(Altemeyer, 1998), 사회지배경향성은 집단 간 불평등한 위계 구조에 대한 수용 및 선호 정도를 의미한다(Pratto et al., 1994). 우익권위주의 또는 사회지배경향성이 강할수록 보수성향으로 해석되며, 실제로 국내외 실증연구에서 두 신념이 각각 보수성향과 그에 일관된 태도 및 행동을 예측하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다(예: 홍기원, 이종택, 2010; Satherley et al., 2021). 또한,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경향성이 상호작용하여 정치성향을 예측하기도 하였다(Wilson & Sibley, 2013).

정치성향과 상관관계에 있는 심리요인에 관한 또 다른 접근법은 도덕기반을 분석하는 것이다. 도덕기반은 행동이나 사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개인에게 내면화된 사회·

문화적 관행 및 제도와 가치가 결합하여 구성된다(Graham et al., 2009). Graham 등(2009)은 범문화적으로 관찰되는 도덕기반으로 개별화 기반(individualizing foundation; 공정, 돌봄의 하위요인)과 결속 기반(binding foundation; 충성, 권위, 신성의 하위요인)을 제안하였으며, 국내외 연구에서 진보성향의 사람들은 개별화 기반을 중시하는 반면 보수성향의 사람들은 개별화와 결속 기반을 모두 중시하는 결과가 관찰되었다(예: 정은경, 손영우, 2011; Haidt & Graham, 2007; Weber & Federico, 2013). 도덕기반과 정치성향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들은 두 개념 간 상호 인과성을 가정하거나, 제3의 변인이 두 개념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이재호, 조긍호, 2014).

이상의 논의를 통해, 선행연구에서는 개인의 정치성향을 나타내는 대립 차원으로 진보-보수를 규정하고 자기명명식 정치성향이나 지지 정당, 또는 정치성향의 상관변수들을 측정하는 접근법을 취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접근법은 정치성향의 구성적 토대를 이해하고 정치성향에 수반되는 태도 및 행동을 선행하여 예측하는 심리요인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또한, 진보-보수의 이분법적 접근은 가치와 문화적 다원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복잡한 정치현실과 개인의 정치성향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제약이 있다. 한국 역시 진보 또는 보수로 대표되는 주요 양당 외에 여성인권, 환경, 소수자 권익 등 다양한 목표와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세력이 등장하고 있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진보 또는 보수세력의 목적이나 내부 담론의 변화가 관찰되며 이에 관한 논의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예: 김일영, 2006; 이항우, 2011, 2012). 따라서 진보 또는 보수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하고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관찰 가능한 심리요인을 기준으로 개인의 정치성향과 신념, 태도 및 행동의 근원을 이해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심리요인 가운데 하나로 개인이 신봉하는 가치를 제안하고, 개인이 중시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진보와 보수 정치성향을 규정하는 접근법의 유용성을 분석하였다.

기본가치모형과 정치가치

가치는 범상황적으로 적용되는 바람직한 목표상태로, 개인의 삶의 지침으로 기능하는 근본적인 심리요인이다(Rokeach, 1973; Schwartz, 1992). 즉, 가치는 정치 영역을 포함하여 일상 전반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개인의 사고와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개념 틀에 해당한다(Roccas & Sagiv, 2017). 가치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둘 이상의 요인으로 구성되는 다차원 가치모형을 제안하여 진보-보수성향과 가치요인 간의 연관성을 탐색하였다. 대표적으로, 안보(security)와 조화(harmony) 가치를 정치성향을 구성하는 핵심가치로 제안하고 진보-보수성향 및 정치행동과의 상관을 검증하거나(Braithwaite, 1997), 미국인들의 지지 정당(진보: 민주당, 보수: 공화당)에 따라서 주체성(agency)과 공존성(communion) 가치를 중시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결과가 관찰되었다(Eriksson, 2018). 또한, 일부 연구에서 상충하는 가치요인에서의 선호(예: 전통 vs. 변화, 순응 vs. 저항)가 진보-보수성향과 암묵적이거나 외현적으로 연합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예: Jost et al., 2008).

이 연구들보다 한층 세분화된 보편 가치요인을 제안하는 모형이 Schwartz(1992)의 기본가치이론(basic value theory)이다. Schwartz는 범문화적으로 관찰되는 열 개의 가치요인을 확인하고 이들이 개인의 사회적 판단, 태도 및 행동을 예측한다는 결과를 다수 보고하였다(참조: Schwartz, 2017; Schwartz & Cieciuch, 2022; 국내에서 타당화된 결과는 다음을 참조: 김연신, 최한나, 2009; 최정원, 이영호, 2014). 서구의 선행연구들은 Schwartz의 모형을 적용하여 열 개의 기본 가치요인이 진보-보수성향과 정치태도 및 행동과 상

관됨을 검증하였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유권자 및 유럽 20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본 가치요인 중 안보, 전통, 동조 가치보다 보편주의와 박애, 자율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일수록 진보성향을 보이고 선거에서 진보정당을 선택하였다(Piurko et al., 2011). 이러한 관계는 인구통계특성이나 성격 5요인과의 관계보다 강했고(Caprara et al., 2006), 미국, 브라질, 일본 등을 포함한 비교문화 연구에서도 반복검증되었다(Caprara et al., 2017). 또한, 28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다국가 표본에서 보편주의와 자율은 개인의 정치참여행동(political activism; 예: 정당 후원, 집회 참여)과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동조와 안보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Vecchione et al., 2015).

나아가 Schwartz 등(2010)은 기본 가치요인에 따라 정치 영역에서 특수하게 전개되는 정치가치(political value)에 주목하였다. 정치가치는 정부, 시민권, 사회구성 등에 대한 개인의 기대를 포괄하는 규범적 틀로써(McCann, 1997) 정치적인 핵심 의제나 담론과 직접 관련된다. Schwartz 등(2010)은 유관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다음의 여섯 가지 정치가치 요인을 제안했다: 법과 질서(law and order), 전통적 도덕관(traditional morality), 자유시장주의(free enterprise), 맹목적 애국주의(blind patriotism), 평등(equality), 시민자유(civil liberties). 법과 질서는 법치에 대한 순응과 사회질서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을, 전통적 도덕관은 종교 또는 가족 중심의 비교적 엄격하고 전통적인 질서를, 자유시장주의는 시장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정부개입, 즉 경제적 개인주의를, 그리고 맹목적 애국주의는 자국에 대한 무비판적이고 무조건적인 애착을 의미한다. 평등은 기회와 자원의 평등한 분배를, 그리고 시민자유는 모든 구성원의 자율성 보장을 의미한다. 이 연구진은 기본 가치요인이 정치가치 요인에 선행하고, 정치가치가 정치이념이나 정치태도 및 행동을 예측하는 근접변수임을 제안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정치가치는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기본 가치요인에 의해 예측되었고, 정치가치가 기본가치를 매개하여 진보-보수성향, 정치이념, 정치태도 및 행동을 직접 예측하였다(Caprara & Vecchione, 2018; Schwartz et al., 2014; Vecchione et al., 2013).

한국인의 정치가치와 진보-보수성향

서구에서는 Schwartz의 기본가치, 정치가치 요인과 정치태도 및 행동의 관계를 검증한 실증연구가 지속해서 보고되고 있다(예: Dimdins et al., 2023; Goren et al., 2016; Nilsson et al., 2020). 한국에서도 기본가치와 진보-보수성향, 정치태도 및 행동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다. 김현정 등(2015)은 진보-보수성향과 대선후보 선택(투표행동)을 예측하는 변수 중 하나로 기본가치 요인의 효과를 분석하여, 기본가치 요인 중 보편주의와 자율이 부적으로, 안보와 전통이 정적으로 자기명명식 보수성향과 이를 매개로 보수 후보 선택을 예측하는 것을 보였다. 반면 윤광일(2017)의 연구에서는 기본가치 요인과 자기명명식 진보-보수성향, 또는 정당 지지나 후보 선택 간 상관이 약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한국에서 수행된 두 편의 연구가 서로 유사한 방법을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가치 요인이 정치성향과 상관되거나 상관되지 않는 비일관된 결과가 관찰되었다. 또한, 이들 연구에서는 기본가치를 매개하여 정치태도 및 행동을 직접 예측하는 정치가치 요인의 역할을 검증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두 편의 선행연구는 한국의 역사·정치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Schwartz의 이론모형을 기계적으로 적용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한국은 식민지배, 분단 및 공산주의와의 대립, 전후 재건, 군사독재와 민주화운동과 같은 고유한 정치사적 배경이 있고, 그에 따라 한국인의 정치성향 역시 서구인과는 다른 독특한 기반을 지닐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인의 정치성향을 구성하는 근본적이고 고유한 심리요인으로 가치의 역할을 규

명함에 있어서, 서구에서 타당화된 이론모형을 한국 상황에 적합하도록 보완 및 확장하여 이론적으로나 실용적으로 모형의 유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Schwartz의 정치가치 모형을 토대로 한국에서 작용하는 정치가치 요인을 구조화하고, 정치가치 중시 양상에 따르는 진보-보수성향과 정치이념, 정치태도에서의 차이를 아래의 연구문제 맥락에서 확인하고자 하였다.

첫째, Schwartz가 제안한 여섯 개 정치가치 요인과, 한국(남한)에서 특수한 요인으로 북한에 대한 견해를 더하여 일곱 개 정치가치 요인을 상정하였다. Schwartz 등(2010, 2014)은 개별 국가에서 정치적으로 주요한 의제에 관한 신념이나 태도를 정치가치 요인으로 포함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에 따라 유럽권의 연구에서 이민자 수용이나 경제적 안정, 환경 등이 정치성향과 태도 및 행동을 예측하는 가치요인으로 포함된 바 있다(Dimdins et al., 2023; Caprara & Vecchione, 2018). 한국에서는 분단 이후 남북한의 체재 경쟁과 갈등으로 인해 구성원의 반공이데올로기 및 대북태도가 진보-보수성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강원택, 2004; 윤성이, 이민규, 2011). 즉, 북한에 우호적인 입장일수록 자유주의 시장경제와 국가안보 중시와는 상충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이는 진보성향과 정적으로 상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도 한국에서 진보-보수성향을 분기하는 주요 요인으로 대북태도를 포함하여, 총 일곱 개 정치가치 요인의 속성과 요인 간의 관계를 구조화하였다. 구체적으로, 법과 질서, 전통적 도덕관, 자유시장주의와 맹목적 애국주의는 서구의 연구 결과와 일관되게 보수성향을 나타내는 가치요인으로, 평등, 시민자유와 우호적 대북태도는 진보성향을 나타내는 가치요인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진보 또는 보수성향을 의미하는 가치요인 간에는 정적 상관이 있고, 진보와 보수성향으로 구분되는 가치요인 간에는 부적 상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더해서 본 연구에서는 일곱 개의 정치가치 요인을 지지하는 양상에 따라 응답자 유형이 분류되는지 확인하였다. 개인마다 일곱 개의 가치요인 중 무엇을 더 중시하거나 덜 중시하는지는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유사한 유형의 응답자를 범주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론적 가정에 부합하게, 진보 가치요인은 중시하는 반면 보수 가치요인은 일관되게 덜 중시하는 응답자 유형이 존재하거나, 반대의 응답자 유형도 존재할 수 있다. 또는, 서구의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한국에서 고유한 정치가치 중시 양상을 지닌 응답자 유형이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상정한 정치가치 요인과 진보-보수성향의 연합을 직접 검증하기 이전에 한국 성원의 정치가치 중시 양상의 유형을 탐색함으로써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응답자의 정치가치 지지 수준을 기준으로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시행하여 표본의 정치가치 중시 양상을 세분화하고 각 유형(프로파일)의 특징을 해석하였다. 변수 간의 관계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변수중심분석(variable-centered analysis)과 달리, 잠재프로파일분석은 개인중심분석(person-centered analysis)으로 응답자들의 특성을 발견적으로 탐색하여 규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Laursen & Hoff, 2006).

연구문제 1. 일곱 개 정치가치 요인 간의 관계와 중시 양상에 따른 유형 탐색

1-1. 보수성향의 정치가치 요인(법과 질서, 전통적 도덕관, 자유시장주의, 맹목적 애국주의)과 진보성향의 정치가치 요인(평등, 시민자유, 대북태도) 간 상관이 이론적 가정과 일관되는가?

1-2. 일곱 개 정치가치 요인을 지지하는 양상에 따른 응답자들의 유형(프로파일)이 어떻게 구분되는가?

둘째, 연구문제 1에서 확인된 정치가치 지지 유형에 따라, 선행연구에서 정치성향의 지표로 측정한 변수들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자기명명식 진보-보수성향과 지지 정당, 보수적 정치이념(사회지배경향성, 우익권위주의), 그리고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태도는 개인이 어떤 정치가치를 중시하는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제된다(Caprara & Vecchione, 2018). 따라서 정치가치 지지 유형과 그 특성에 따라 해당 변수들에서 차이가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보수 세력으로 해석되는 유형에서는 스스로 보수성향으로 명명하고, 보수정당을 지지하며, 보수적 정치이념 수준(사회지배경향성, 우익권위주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진보와 보수의 입장이 분기되는 구체적인 현안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반면, 진보 세력으로 해석되는 유형에서는 스스로 진보성향으로 명명하고, 진보정당을 지지하며, 보수적 정치이념 수준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구체적인 현안에서 진보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만약 중도로 해석되는 유형이 발견된다면 정치성향과 정치이념, 현안 기반 정치태도에서 진보와 보수 유형의 중간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는, 현재 한국의 정치 양극화로 인해(박상훈, 2023), 가치적으로는 중도이지만 자기명명식 정치성향이나 지지 정당, 정치이념 및 현안 태도에서 진보 또는 보수의 특정한 방향으로 편향될 가능성도 있다.

연구문제 2. 정치가치 지지 유형 간 진보-보수성향, 지지 정당, 정치이념 및 정치태도에서의 차이

2-1. 정치가치 지지 유형에 따라 자기명명식 정치성향(진보-보수)과 지지 정당에서 차이가 존재하는가?

2-2. 정치가치 지지 유형에 따라 보수적 정치이념(사회지배경향성, 우익권위주의) 수준에서 차이가 존재하는가?

2-3. 정치가치 지지 유형에 따라 현안 기반 정치태도에서 차이가 존재하는가?

위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진행 시점(2024년 상반기)을 기준으로 한국에서 진보와 보수로 대표되는 주요 양당인 국민의힘(보수)과 더불어민주당(진보)의 지지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는 한국인의 정치가치 구조와 정치성향에 관한 연구의 기초 단계에서, 외현화된 정치태도가 비교적 분명한 표본에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함이었다. 본 연구는 기관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수행되었다(SKKU IRB 2024-04-002). 연구에 사용된 전체 재료와 응답 원자료, 분석 결과는 주저자에게 요청하여 열람할 수 있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2024년 총선을 전후로 수집된 반복측정 조사 자료 중 사전 조사(총선 약 일주일 전인 4월 3~5일 실시함) 자료가 사용되었다. 조사는 패널 조사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온라인으로 시행되었고, 국민의힘 또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유권자(18~69세) 총 450명을 모집하였다(국민의힘 지지 226명, 더불어민주당 지지 224명). 성별, 연령대와 거주지역(제주 제외)은 지지 정당 표본 내에서 균등표집하였다(지지 정당과 인구통계특성 분포는 표 1을 참조).

응답자들은 연구 목적과 절차를 안내받고 사전 동의한 후에 전체 문항에 응답하였다. 변수의 측정 순서는 다음과 같았다: (1) 지지 정당 및 주요 인구통계특성, (2) 현안 기반 정치태도, (3) 자기명명식 정치성향, (4) 정치가치 요인, (5) 정치이념, (6) 기타 인구통계특성.

측정변수

정치가치 요인

Schwartz 등(2010, 2014)의 척도를 활용하여, 여섯 개의 정치가치 요인(법과질서, 전통적도덕관,

표 1. 지지 정당 및 인구통계변수에 따른 참가자 분포

구분		지지 정당		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성별	남성	111	110	221 (49.1)
	여성	115	114	229 (50.9)
연령	20대 이하(18~29세)	44	45	89 (19.8)
	30대(30~39세)	44	45	89 (19.8)
	40대(40~49세)	47	45	92 (20.4)
	50대(50~59세)	46	44	90 (20.0)
	60대(60~69세)	45	45	90 (20.0)
거주지역	서울/경기/인천	57	54	111 (24.7)
	대전/세종/충청	45	46	91 (20.2)
	광주/전라	47	44	91 (20.2)
	부산/대구/울산/경상	44	45	89 (19.8)
	강원	33	35	68 (15.1)
학력	중졸 이하	3	2	5 (1.1)
	고등학교 졸업	49	44	93 (20.7)
	대학교 졸업(전문대포함)	142	154	296 (65.8)
	대학원 재학 이상	32	24	56 (12.4)
가계 월소득 수준	250만원 미만	28	25	53 (11.8)
	250~499만원	88	96	184 (40.9)
	500~749만원	62	54	116 (25.8)
	750~999만원	30	31	61 (13.6)
	1,000만원 이상	18	18	36 (8.0)
계(%)		226 (50.2)	224 (49.8)	450 (100)

자유시장주의, 애국주의, 평등, 시민자유)과 연구진이 상정한 우호적 대북태도 요인을 설명하는 진술문에 얼마나 동의하는지(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6 = 매우 동의한다) 물었다. 요인당 세 문항씩 총 21개 문항이 사용되었고 요인의 측정 순서는 무선화하였다. 전체 문항의 탐색적 요인분석(주성분분석, Direct Oblimin 사각회전 실시)과 문항 간 신뢰도(Cronbach's α) 분석 결과를 표 2에 수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기초해는 6요인이 산출되었으나(평등 측정 문항이 다른 요인에 부하됨), 7요인 고정 분석 결과 이론모형에 일관되게 문항이 구분되었고 문항 간 신뢰도가 대부분 .60 이상이었다. 따라서 각 요인을 측정한 세 문항을 평균하여 일곱 개 가치요인 점수를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지지 정당 및 자기명명식 정치성향

설문 도입부에서 응답자의 지지 정당(국민의

표 2. 정치가치 측정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문항 간 신뢰도 분석 결과

문항	요인명 및 요인부하량							α
	법과 질서	평등	대북 태도	자유 시장주의	전통적 도덕관	애국 주의	시민 자유	
정부가 시민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용인될 수 있다.	**0.76**	0.10	-0.04	0.06	-0.13	0.00	0.24	
사회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표현에 대한 자유는 제한해야 한다.	**0.66**	0.08	-0.08	0.15	-0.09	0.12	0.05	.68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과 질서의 유지이다.	**0.60**	-0.07	-0.11	0.00	0.01	0.20	**-0.36**	
정부는 부자와 빈자 모두에게 평등한 자원이 분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0.03	**0.75**	0.13	-0.06	-0.08	0.01	0.01	
모든 시민이 지금보다 더 평등하게 대우받는다면 여러 사회 문제가 해소될 것이다.	-0.02	**0.74**	0.07	-0.10	-0.01	0.04	-0.15	.68
국가는 모든 사람에게 성공을 위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0.31**	**0.59**	0.03	-0.05	0.16	-0.09	-0.27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0.05	0.11	**0.87**	0.07	-0.08	-0.03	0.07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되기 전까지는 대북제재를 지속해야 한다. (역)	-0.25	0.06	**0.62**	0.07	0.14	0.08	0.09	.68
남북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에서도 경제 교류·협력을 지속해야 한다.	0.07	-0.01	**0.88**	-0.05	0.00	-0.03	-0.04	
고등교육은 정부에서 통제하기보다는 사립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0.25	0.02	0.05	**0.73**	-0.16	0.04	-0.06	
정부가 기업과 경제에 덜 개입할수록 국가는 더 발전할 것이다.	0.24	-0.12	0.10	**0.69**	-0.01	-0.01	-0.12	.53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더라도 개인의 기여도에 따른 자원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0.24	-0.11	-0.12	**0.59**	0.12	-0.03	-0.06	
새로운 생활양식이 우리 사회를 망가트리고 있다.	-0.02	0.08	-0.17	0.06	**-0.80**	-0.06	0.11	
전통적인 가족 관계를 강조한다면 국가의 여러 문제가 해소될 것이다.	0.07	0.04	0.07	0.10	**-0.75**	0.07	0.10	.80
종교적, 도덕적 전통 가치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0.15	-0.17	0.09	-0.16	**-0.70**	0.08	**-0.38**	
나는 국가가 잘 하든 못 하든 항상 지지할 것이다.	0.01	0.02	0.05	-0.05	0.02	**0.83**	0.09	
모든 국민에게는 국가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0.14	-0.12	0.01	-0.08	0.00	**0.68**	**-0.31**	.62
국가를 비판하는 것은 애국적이지 않다.	-0.05	0.14	-0.18	0.22	-0.12	**0.64**	**0.32**	
개인의 자유와 신념을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0.00	0.04	-0.04	0.04	0.05	-0.13	**-0.80**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0.02	0.22	-0.01	0.13	0.09	0.06	**-0.76**	.76
개인의 자유권은 침해할 수 없으며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보장되어야 한다.	-0.24	0.23	-0.04	0.18	-0.13	0.06	**-0.75**	
요인설명량(%)	17.81	15.47	10.24	6.92	5.75	5.30	4.38	-

주. n = 448; 요인 순서는 요인설명량 크기순으로, 문항 순서는 요인부하량 크기순으로 정렬. 요인부하량의 절대값이 .30 이상인 경우 굵은 글씨로 표시함.

힘 또는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하도록 하였다(기타 또는 지지 정당이 없을 경우 조사 참여 불가). 자기명명식 정치성향은 “귀하는 자신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진보적 또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의 단일문항으로 측정하였다(1 = 매우 진보적, 4 = 중도, 7 = 매우 보수적).

정치이념(사회지배경향성, 우익권위주의)

사회지배경향성. Ho 등(2015)이 제안하고 국내에서 이하연 등(2021)이 사용했던 사회지배경향성 단축판 척도의 여덟 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지배성(예: “여러 집단 간에 상대적 우위가 정해져 있는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이다”, “한 사회에서 어떤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열등할 수 밖에 없다”)과 평등주의(예: “모든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성공을 위한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모든 집단 간의 평등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역)”)를 구분하여 집단 간 위계질서에 관한 개인의 신념을 묻는다. 응답자들은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6 = 매우 동의한다)에 응답하였으며, 값이 클수록 높은 사회지배경향성을 의미하도록 점수화하여 전체 문항의 평균점수(Cronbach’s α = .73)를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우익권위주의. Altemeyer(1998) 척도의 단축판을 타당화한 Zakrisson(2005)의 척도에서 여덟 개 문항(예: “전통적 가치와 전통적 방식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최선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시민적 권리가 아니라 강력한 법과 질서이다”)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Altemeyer(1998)의 척도는 전통 및 관습의 고수와 권위주의적 신념을 묻고 있으며 여러 국내 연구에서 사용되어왔다(예: 박주화 등, 2022; 전명심, 이영선, 2023). 응답자들은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6 = 매우 동의한다)에 응답하였고, 값이 클수록 높은 우익권위주의를 의미하도록 점수화하여 전체 문항의 평균점수(Cronbach’s α = .87)를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현안 기반 정치태도(경제, 외교, 사회)

대규모 연구조사(박주화 등, 2022)와 여론조사(중앙일보, 2022) 등에서 제안한 요인과 문항을 참조하여 본 연구진이 문항을 개발하였다. 경제, 외교, 사회 영역에서 진보 또는 보수성향에 따라 태도가 양분되는 현안을 각 세 개씩 도출하여, 개별 현안에 대한 진보 또는 보수의 입장을 양극에 제시하는 척도를 구성하였다(예: “경제성장이 둔화되더라도 복지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vs. 경제성장을 위해 불필요한 복지예산을 대폭 줄여야 한다”, “한국은 독자적인 외교적 지위와 안보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vs. 한국은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유지와 안보 체계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결사・표현의 자유를 위해 집회와 시위를 제한없이 허용해야 한다 vs.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집회와 시위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응답자들은 양극척도에서 더 동의하는 진술문을 선택한 후 해당 진술문에 동의하는 정도를 1점(다소 동의)에서 3점(매우 동의) 사이에 응답했다. 양극척도에서 숫자가 클수록 보수성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점수화하였으며(1~6점), 각 영역에서 문항 간 신뢰도가 충분하여(Cronbach’s α 경제 = .75, 외교 = .72, 사회 = .64)[1] 세 문항의 점수를 평균하여 경제, 외교, 사회 영역에서의 현안 태도 점수로 사용하였다.

인구통계특성

성별, 연령, 거주지역은 응답자 균등할당을 위해 설문 초반에 측정되었다. 그리고 학력과 월평균소득을 설문 후반에서 측정하였다.

---

1) 사회 영역을 측정한 세 개 문항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탐색적으로 개발되었거나 요인 내 문항 개수가 열 개 이하일 때 문항 간 신뢰도가 .60 이상이면 적합한 것으로 해석하고(Nunnally & Bernstein, 1994), 문항 간 상관 평균이 r = .38(범위 .37-.38)로 수용 가능한 범위로 판단하였다.

결 과

핵심 변수인 정치가치를 측정한 21개 문항에 모두 동일한 점수로 응답한 두 명을 제외하고 448명(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각 224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응답자들의 정치가치 지지 점수를 기준으로 유형(프로파일)의 수를 2개부터 7개까지 순차적으로 더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Mplus Version 8.7을 사용하였다. 이 외의 분석에는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6.0을 사용하였다.

측정변수의 기술통계치와 상관분석 결과는 표 3에 수록하였다. 상관분석에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치가치 요인 중 보수가치요인 간 정적 상관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진보가치요인 간 정적 상관이 대부분 유의하였으며(시민자유와 대북태도 간 상관을 제외), 보수가치와 진보가치 요인 간 대부분 부적 상관을 보이거나 통계적으로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 중 이론적 가정과 상반되게, 진보가치인 시민자유가 보수가치인 법과질서, 그리고 자유시장주의와 정적으로 상관되었다, 순서대로 $r = .13$, $p = .005$; $r = .20$, $p < 001$. 한편, 보수가치 요인들과 보수적 정치이념(사회지배경향성, 우익권위주의) 및 현안 태도(경제, 외교, 사회) 간 정적 상관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진보가치 요인들과 보수적 정치이념 및 현안 태도 간에는 대부분 부적 상관이 유의하였다(평등과 우익권위주의, 시민자유와 경제영역 현안 태도 간 상관을 제외). 그리고 이론적 가정과 달리, 진보가치인 시민자유와 우익권위주의 간 약한 정적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r = .11$, $p = .021$.

정치가치 중시 양상의 잠재프로파일분석 결과

잠재프로파일분석에서 확인된 모형 적합도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유형(프로파일)의 수가 증가할수록 AIC, BIC, SABIC 지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BIC 지수의 감소 폭이 다섯 개 유형 모형에서 가장 작았다. BIC와 SABIC 지수는 여섯 개 또는 일곱 개 유형 모형에서 가장 작고, Entropy 지수는 다섯 개 또는 여섯 개 유형 모형에서 가장 컸다. 이를 종합하여, 다섯 개 또는 여섯 개 유형이 적합할 것으로 고려하였으나, 여섯 개 유형 모형에서 그중 한 유형의 사례 수가 한 개로 분류되어(전체 중 0.22%) 유의미한 범주로 해석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섯 개 유형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섯 개 유형의 정치가치 중시 양상과 응답자 분포는 표 5와 그림 1에 제시하였다(그림 1 도표의 색상은 온라인 자료를 참조). 각 유형의 특징을 해석하여 명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장 많은 사례가 할당된 유형은 거의 모든 가치요인에서 중간 수준의 지지를 보여 '중도(59.38%)'로 해석하였다. 한편, 보수가치요인(법과질서, 전통적도덕관, 자유시장주의, 애국주의)보다 진보가치요인(평등, 시민자유, 대북태도)을 중시하는 두 개 유형이 발견되었으며, 두 유형은 대북태도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대북태도가 우호적이며 진보가치를 중시하는 유형을 '진보-북한우호(10.71%)'로, 진보가치를 지지하지만 대북태도가 상대적으로 덜 우호적인 유형을 '진보-북한비우호(15.18%)'로 명명하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가치를 더 중시하고 진보가치를 덜 중시하는 두 개 유형이 발견되었고, 이 두 유형은 진보가치 중 평등 중시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보수가치와 평등을 함께 중시하는 유형을 '보수-평등중시(9.82%)'로 명명하고, 보수가치를 중시하며 평등을 중시하지 않는 유형을 '보수-평등비중시(4.91%)'로 명명하였다. 특이점은, 두 개의 보수 유형이 공통적으로 진보가치인 시민자유를 척도의 중간점(3.5점)보다 높게 지지하였다. 각 유형 내에서 일곱 개 정치가치 점수에서의 차이(반복측정 일원변량분석)와, 각 정치가치 점수와 척도 중간점과의 차이(t검증)를

표 3. 측정변수 간 상관 및 기술통계치

변수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정치가치: 법과질서	-												
2. 정치가치: 전통적도덕관	.33**	-											
3. 정치가치: 자유시장주의	.27**	.21**	-										
4. 정치가치: 애국주의	.36**	.39**	.19**	-									
5. 정치가치: 평등	.06	-.00	-.11*	-.04	-								
6. 정치가치: 시민자유	.13**	.04	.20**	-.01	.40**	-							
7. 정치가치: 대북태도	-.31**	-.11*	-.14**	-.15**	.33**	.04	-						
8. 자기명명정치성향	.33**	.22**	.17**	.25**	-.34**	-.14**	-.43**	-					
9. 사회지배경향성	.13**	.13**	.22**	.12**	-.51**	-.25**	-.34**	.27**	-				
10. 우익권위주의	.57**	.48**	.37**	.43**	-.03	.11*	-.32**	.25**	.17**	-			
11. 정치태도: 경제	.33**	.17**	.35**	.27**	-.44**	-.06	-.45**	.46**	.35**	.33**	-		
12. 정치태도: 외교	.29**	.16**	.18**	.19**	-.39**	-.14**	-.65**	.52**	.32**	.26**	.53**	-	
13. 정치태도: 사회	.36**	.22**	.27**	.20**	-.32**	-.13**	-.48**	.48**	.36**	.38**	.52**	.51**	-
평균	4.12	3.27	3.63	3.19	4.14	4.62	3.20	3.98	3.07	3.92	3.56	3.20	3.39
(표준편차)	(0.89)	(0.88)	(0.81)	(0.92)	(0.89)	(0.84)	(1.09)	(1.36)	(0.63)	(0.95)	(1.17)	(1.23)	(1.12)

주. $n = 448$. * $p < .05$, ** $p < .01$.

표 4. 정치가치 일곱 개 요인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모형 수	AIC	BIC	SABIC	VLMRT (p-value)	BLRT (p-value)	Entropy
2	8092.54	8182.85	8113.03	0.025	0.000	0.57
3	8005.45	8128.60	8033.39	0.059	0.000	0.66
4	7946.17	8102.16	7981.56	0.724	0.000	0.77
5	**7912.47**	**8101.29**	**7955.31**	**0.167**	**0.000**	**0.79**
6	7878.66	8100.32	7928.95	0.211	0.000	0.81
7	7851.82	8106.32	7909.55	0.611	0.000	0.78

주. n = 448. 최종 선택된 모형 수를 굵은 글씨로 표시함.

표 5. 다섯 개 유형(프로파일)의 정치가치 지지 수준(점수) 및 사례 수

유형	평균(표준편차)							사례수 (%)
	법과 질서	전통적 도덕관	자유 시장주의	애국 주의	평등	시민 자유	대북 태도	
진보-북한우호	3.13 (0.85)	2.45 (0.82)	2.83 (0.84)	2.15 (0.72)	4.83 (0.49)	4.69 (0.73)	4.59 (0.93)	48 (10.71)
진보-북한비우호	4.47 (0.71)	3.19 (0.70)	3.94 (0.86)	2.98 (0.88)	5.16 (0.49)	5.41 (0.56)	3.69 (1.03)	68 (15.18)
중도	4.02 (0.74)	3.25 (0.70)	3.61 (0.62)	3.25 (0.70)	3.82 (0.50)	4.34 (0.69)	3.05 (0.85)	266 (59.38)
보수-평등중시	5.20 (0.54)	4.43 (0.80)	3.87 (0.94)	4.31 (0.91)	4.82 (0.56)	5.18 (0.64)	2.56 (1.00)	44 (9.82)
보수-평등비중시	4.30 (0.92)	3.30 (1.28)	4.24 (0.98)	3.24 (1.15)	2.05 (0.54)	4.15 (1.39)	1.79 (0.73)	22 (4.91)

주. n = 448, 정치가치 점수 범위: 1~6점.

검증한 분석 결과는 부록 Ⅰ에 제시하였다.

유형 간 주요 정치태도의 차이 검증 결과

본문과 표에 수록된 결과와 해석 외의 상세 결과는 부록 Ⅱ(지지 정당 및 자기명명식 진보-보수)와 부록 Ⅲ(정치이념 및 현안 기반 정치태도)에 제시하였다.

지지 정당 및 자기명명식 진보-보수

다섯 개 유형에서 지지 정당과 자기명명식 진보-보수 분포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연속점수인 자기명명식 진보-보수를 세 범주로 분류하고 (1~3점: 진보, 4점: 중도, 5~7점: 보수), 다섯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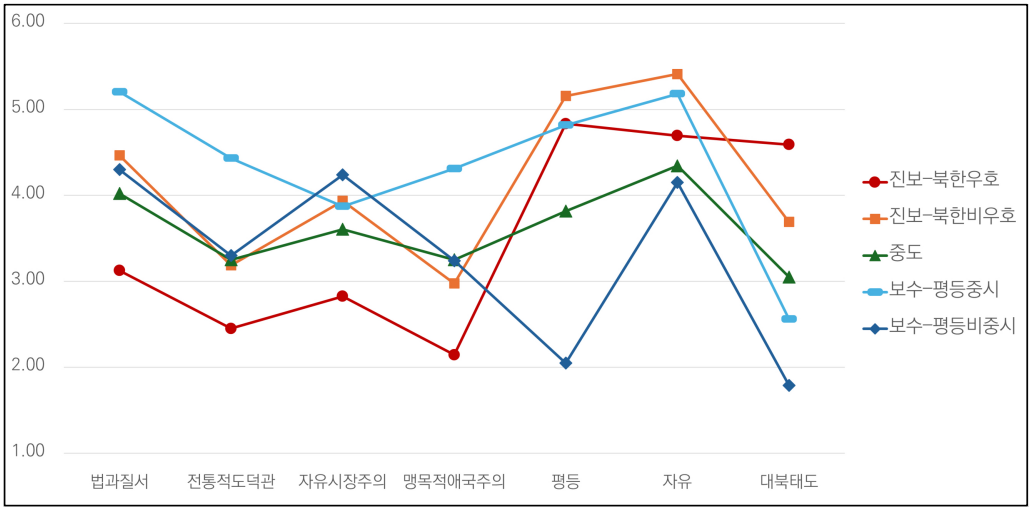


그림 1. 정치가치 중시 양상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표 6. 다섯 개 유형(프로파일)의 지지 정당 및 자기명명식 정치성향 분포

유형		지지 정당		자기명명식 정치성향			유형 총합 (전체 %)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보수	중도	진보	
진보-북한우호	빈도수	2	46	4	6	38	48
	(%)	(4.17)	(95.83)	(8.33)	(12.50)	(79.17)	(10.71)
진보-북한비우호	빈도수	18	50	13	12	43	68
	(%)	(26.47)	(73.53)	(19.12)	(17.65)	(63.24)	(15.18)
중도	빈도수	154	112	106	82	78	266
	(%)	(57.89)	(42.11)	(39.85)	(30.83)	(29.32)	(59.38)
보수-평등중시	빈도수	33	11	25	9	10	44
	(%)	(75.00)	(25.00)	(56.82)	(20.45)	(22.73)	(9.82)
보수-평등비중시	빈도수	17	5	16	4	2	22
	(%)	(77.27)	(22.73)	(72.73)	(18.18)	(9.09)	(4.91)

주. n = 448; 빈도수 아래 비율(%)은 각 유형 내 비율을 의미함.

유형에서 준거요인의 발생확률 차이를 이항 및 다항 로지스틱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지지 정당에서 정치가치 지지 유형의 예측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X^2(4) = 90.67$, $p < .001$, Nagelkerke $R^2 = .24$, 진보-북한우호와 진보-북한비우호 유형에서 국민의힘보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컸다, 진보-북한우호 $B = 4.36$, $SE_b = 0.88$, Exp(B) = 78.20, 95% 신뢰구간 [13.84, 441.81]; 진보-북한비우호 $B = 2.25$, $SE_b = 0.58$, Exp(B) = 9.44, 95% 신뢰구간 [3.04,

29.34]. 다른 유형에서 지지 정당 발생빈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s > .084$. 기술적으로는, 진보-북한우호 또는 비우호에서 국민의힘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다수였고, 보수-평등중시 또는 평등비중시에서 모두 국민의힘 지지자가 다수였으며, 중도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자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보다 많았다.

자기명명식 진보-보수(준거 참조집단: 중도)에서도 정치가치 지지 유형의 예측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X^2(8) = 84.34$, $p < .001$, Nagelkerke $R^2 = .19$. 구체적으로, 진보-북한우호와 진보-북한비우호 유형에서 스스로 중도보다 진보로 명명할 가능성이 컸다, 진보-북한우호 $B = 2.54$, $SE_b = 0.97$, Exp(B) = 12.67, 95% 신뢰구간 [1.89, 84.97]; 진보-북한비우호 $B = 1.97$, $SE_b = 0.93$, Exp(B) = 7.17, 95% 신뢰구간 [1.17, 43.97]. 또한, 진보-북한우호에서 스스로 중도보다 보수로 명명할 가능성은 작았다, $B = -1.79$, $SE_b = 0.85$, Exp(B) = 0.17, 95% 신뢰구간 [0.03, 0.89]. 이 외의 유형에서 진보-보수 정치성향의 발생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s > .051$. 기술적으로는, 두 개의 진보 유형에서는 다수가 스스로 보수 또는 중도가 아닌 진보로 명명했고, 두 개의 보수 유형에서 다수가 스스로 진보 또는 중도가 아닌 보수로 명명했으며, 중도 유형에서는 스스로 중도이거나 보수로 명명한 응답자의 비율이 진보 응답자 비율보다 컸다.

정치이념

다섯 개 정치가치 지지 유형에서의 보수적 정치이념(사회지배경향성, 우익권위주의) 수준과, 유형 간 차이를 검증한 일원변량분석 및 Scheffé 사후검증 결과를 본문과 표 7에 제시하였다. 사회지배경향성 수준에서 유형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F(4, 443) = 31.92$, $p < .001$, $\eta^2_p = .22$, 다섯 개 유형에서 세 수준으로 사회지배경향성 점수가 구분되었다. 우익권위주의 수준에서도 유형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F(4, 443) = 36.76$, $p < .001$, $\eta^2_p = .25$, 다섯 개 유형에서 세 수준으로 우익권위주의 점수가 구분되었다. 두 정치이념에서 공통적으로

표 7. 다섯 개 유형(프로파일)의 정치이념 및 현안기반 정치태도 점수

유형		정치이념		현안기반 정치태도		
		사회지배경향성	우익권위주의	경제	외교	사회
진보-북한우호	평균	2.51_a	2.83_a	2.36_a	2.03_a	2.40_a
	(표준편차)	(0.68)	(0.96)	(0.85)	(1.04)	(0.93)
진보-북한비우호	평균	2.71_a	4.08_b	3.04_b	2.36_a	2.96_{ab}
	(표준편차)	(0.56)	(0.87)	(1.15)	(1.12)	(1.09)
중도	평균	3.22_b	3.91_b	3.71_c	3.40_b	3.47_{bc}
	(표준편차)	(0.49)	(0.78)	(0.98)	(0.99)	(0.97)
보수-평등중시	평균	3.07_b	4.88_c	4.11_c	3.82_b	4.11_{cd}
	(표준편차)	(0.61)	(0.68)	(1.27)	(1.28)	(1.08)
보수-평등비중시	평균	3.73_c	3.94_b	4.95_d	4.64_c	4.59_d
	(표준편차)	(0.80)	(1.08)	(0.84)	(1.00)	(1.06)

주. $n = 448$; 평균점수에 표시된 알파벳은 유형(프로파일) 간 사후검증 결과에서의 차이를 의미함. 점수가 클수록 보수성향을 의미함.

진보-북한우호 유형의 점수가 가장 낮고, 보수-평등중시 또는 보수-평등비중시 유형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중도 유형의 경우 우익권위주의는 진보와 보수의 중간 수준이었고, 사회지배경향성은 보수-평등중시 유형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았다.

현안 기반 정치태도

다섯 개 정치가치 지지 유형의 현안 태도(경제, 외교, 사회; 높을수록 보수적임을 의미) 수준과, 유형 간 차이를 검증한 일원변량분석 및 Scheffé 사후검증 결과를 본문과 표 7에 함께 제시하였다. 경제영역 현안 태도에서 유형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F(4, 443) = 35.74$, $p < .001$, $\eta^2_p = .24$, 다섯 개 유형에서 네 수준으로 점수가 구분되었다. 외교영역 현안 태도에서도 유형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F(4, 443) = 42.49$, $p < .001$, $\eta^2_p = .28$, 다섯 개 유형에서 세 수준으로 점수가 구분되었다. 그리고 사회영역 현안 태도에서 유형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F(4, 443) = 28.73$, $p < .001$, $\eta^2_p = .21$, 다섯 개 유형에서 네 수준으로 점수가 구분되었다. 세 영역의 현안 태도에서 공통적으로, 진보-북한우호 유형의 점수가 가장 낮고, 보수-평등비중시 유형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중도 유형은 대체로 보수-평등중시 유형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논 의

본 연구는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정치가치 구조를 제안하고, 2024년을 기점으로 한국 유권자의 정치가치 중시 양상을 유형화하여 그에 따른 자기명명식 진보-보수성향과 지지 정당, 정치이념 및 태도에서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Schwartz 등(2010, 2014)의 정치가치 이론을 토대로 한국에서 특수한 정치 의제를 반영하여 일곱 개의 정치가치 요인(법과 질서, 전통적 도덕관, 자유시장주의, 맹목적 애국주의, 평등, 시민자유, 대북태도)을 상정하고, 요인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으며 응답자들의 정치가치 지지 유형을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다섯 개의 응답자 유형이 발견되었으며, 중도 유형을 기준으로 진보와 보수로 해석되는 각각 두 유형이 관찰되었다. 진보의 두 유형(진보-북한우호, 진보-북한비우호)은 이론적인 가정과 일관되게 보수가치보다 진보가치를 중시하였고, 이들을 구분하는 요인은 우호적 대북태도의 상대적인 수준이었다. 한편, 보수의 두 유형(보수-평등중시, 보수-평등비중시)은 진보나 중도 유형에 비해 보수가치를 중시하는 편이었으며 대북태도는 부정적이었다. 특이점은 두 보수 유형이 모두 시민자유를 중시하는 양상을 보였고, 이들을 구분하는 요인은 평등이었다. 보수-평등비중시 유형과 달리, 보수-평등중시 유형은 진보 유형과 유사한 수준으로 평등과 시민자유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전체 표본 상관 결과에서 평등이 대부분의 보수가치요인과 부적으로 상관되지 않았고, 시민자유가 일부 보수가치요인(법과질서, 자유시장주의)과 약하지만 정적 상관을 보인 결과와도 일관된다.

서구 연구에서도 정치가치 요인과 정치성향의 상관이 이론과 비일관되거나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폴란드와 독일 등에서 평등이 자기명명식 진보-보수성향과 상관되지 않았고, 미국에서는 시민자유와 진보(좌)-보수(우)성향 간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Caprara & Vecchione, 2018). 스웨덴에서도 지지 정당과 관계없이 모든 응답자가 시민자유를 강하게 지지하였다(Nilsson et al., 2020). 이는 앞서 논했듯이 공동체의 역사 및 정치적 맥락에 따라서 구성원들이 어떤 정치가치를 중시하는지와 개별 가치요인과 진보-보수성향의 연합 양상이 다름을 시사한다. 따라서 한국에서 정치가치 요인의 의미와 각 가치가 중시되는 이유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기준으로 구분되는 하위 사회범주 간 정치가치 요인에 대한 해석과 중시 이

유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에서 진보와 보수가 표상하는 '시민자유'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 시민자유를 지지하는 수준이 진보와 보수 유형에서 모두 높게 나타난 것은 진보와 보수가 시민자유를 각기 달리 해석하고 해당 가치를 지지하기 때문일 수 있다. 시민자유는 구성원에 대한 공권력의 불간섭과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그리고 모든 시민이 공동체 주권에 공평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주체성의 강조 등 여러 상관된 의미를 내포한다(김비환, 2018). 이 관점에서 보면, 진보와 보수가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시민자유의 의미와 그에 대한 지지 양상도 다를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진보-보수 구분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변화나 세대에 따라서 시민자유를 비롯한 여러 정치가치 요인에 대한 표상이 달라질 수 있다. 특정 사회문화적 전환점을 기준으로 구분되거나, 서로 다른 정치・사회・역사적 맥락과 사건을 경험한 세대 및 집단(코호트) 간 정치가치의 표상과 해석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는 것이 흥미로운 장래 연구 과제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세분화된 다섯 개의 정치가치 지지 유형 별로 자기명명식 진보-보수성향과 지지 정당, 보수적 정치이념(사회지배경향성, 우익권위주의), 현안 기반 정치태도에서 이론적 가정에 일관되면서도 동시에 각 유형 간 구분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 응답자의 약 60%가 대부분의 정치가치를 중간 수준으로 지지하는 중도 유형이었으나 이들의 외현적인 정치성향과 태도가 약하게 우편향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다. 중도 유형의 응답자들은 스스로 보수로 규정하거나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념과 현안 태도에서도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관찰된 중도 유형의 특징에 관한 해석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중도는 특정 시점에서 주요한 정치 의제나 현안에 따라 진보 또는 보수적인 태도를 유동적으로 보일 수 있다. 따라서 가치적으로 중도인 유권자들의 자기명명식 정치성향이나 정치이념,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요인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정치가치 요인에 대한 표상뿐만 아니라 진보-보수성향의 구분 및 해석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최석만 등, 1991; Caprara & Vecchione, 2018), 따라서 이들 사이에 위치한 중도의 성격 역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가치가 이념이나 태도보다 안정적인 심리요인이더라도, 진보-보수 진영에서의 정치가치 표상 및 중시 양상의 변화를 고려하고 이들과 정치적 현안과의 관계에 유의하여 중도층의 해석이 필요하다.

또 다른 한편으로, 약 60%의 중도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의 약 26%가 두 개의 진보 유형에, 약 14%는 두 개의 보수 유형에 해당하였다. 이는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 사회가 진보와 보수로 양분되어 있다는 일각의 해석(예: 박상훈, 2023)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자들이 개인의 정치성향과 태도를 개념화하고 측정하는 방법의 차이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 보다 중요하게, 정치가치 지지 양상에 따라 진보와 보수가 각각 두 개 유형으로 세분화된 결과는 한국인의 정치성향을 진보와 보수로 양분하는 접근법의 한계를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관찰된 진보-북한우호(약 11%)와 보수-평등비중시(약 5%) 유형은 수치상 소수이지만, 잠재프로파일분석에서 개별 프로파일에 할당된 사례의 비율이 3~5% 이상이고 이론적으로 의미 있는 집단일 경우 유의한 프로파일로 인정하는 기준(Spurk et al., 2020; Weller et al., 2020)에 따라 이론적으로,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다섯 개 유형 간 정치성향 및 태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 점은, 진보-보수로 대분하는 정치성향이나 정당정체성에 선행하는 요인으로써 정치가치 지지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유관 현상에 대한 보다 충실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중시하는 정치가치의 주요 요인과 지지 양상, 그리고 가치 기반 정치태도 및 행동에서의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다양한 가치와 신념에 기반한 민주적 숙의 과정을 도출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연구 함의와 장래 과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유권자들의 정치가치 지지 양상에서 다섯 개의 세분화된 유형이 발견되었으며, 이들은 서구에서 전제하는 진보-보수와는 다른 고유한 특징을 보였다. 이는 적어도 가치체계에 따라서는 한국인의 정치성향을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인의 정치성향이나 이념적 특성을 검증한 선행연구는 단일차원의 자기명명식 정치성향 또는 지지 정당 측정에 의존하거나(예: 이상신 등, 2023) 개념근거가 다른 여러 구성개념을 편의적으로 사용해왔다(예: 김현정 등, 2015; 한정훈, 2016). 진보-보수성향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을 제안한 일부 연구(예: 강원택, 2004; 윤성이, 이민규, 2011)에서도 하위요인의 구체성이나 적용 범위가 연구모형 내 또는 연구모형 간 제각기 다르다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검증한 한국인의 정치가치 구조는 가치라는 보편적인 심리요인에 관한 이론모형에 기반한다. 따라서 구성원이 자각하는 정치성향을 구성하며, 그에 수반되는 이념, 태도 및 행동을 예측하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서 논했듯이 진보 또는 보수의 이분법적인 틀을 넘어서 다원화된 정치성향과 태도 및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 틀로서 유용성을 지닐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론적으로 상정한 정치가치는 범상황적인 목표상태인 기본가치가 주요 정치 의제에 관련하여 발현된 것으로 전제된다(Caprara & Vecchione, 2018; Schwartz, 2010). 유관된 서구의 선행연구에서는 성격이나 기본가치가 정치가치와 상관되는 양상을 탐색하고, 정치가치가 이들을 매개하여 이념과 정치태도 및 행동을 예측하는 경로를 검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본가치(예: 보편주의, 박애, 전통, 권위)와 정치가치, 진보-보수성향, 이념, 태도 및 행동으로 이어지는 순차적인 경로를 직접 검증하지 않았다. Schwartz의 기본가치모형이 한국에서 타당하고(최정원, 이영호, 2014), 한국인의 기본가치와 정치성향 간 상관이 유의하며(김현정 등, 2015), 진보 또는 보수성향과 특수하게 결합된 정치가치 요인이 발견된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인의 기본가치와 정치가치, 그리고 정치성향 간에 서구와 일관되면서 동시에 독특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기본가치와 정치가치, 그리고 이들에 수반되는 정치이념, 태도 및 행동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적용한 이론모형 외에도 다른 정치가치 모형과의 비교검증을 통한 연구 확장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Braithwaite(1997)는 정치성향과 관련되는 가치를 조화와 안보로 대분하고 진보-보수성향과의 상관을 검증했다. 이에 더해서 두 가치요인이 독립적이며 두 차원의 조합을 통해 네 개의 하위유형으로 정치성향을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Braithwaite, 1998). 따라서 가치요인을 구분하고 정치성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 Schwartz와 Braithwaite의 모형에서 규정한 요인을 비교하고 정치성향을 진보-보수보다 다양하게 해석하는 시도도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가치이론 외에도 정치성향을 설명하는 다른 이론을 접목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도덕기반은 성격이나 기본가치와 같은 수준에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되므로(Haidt et al., 2009), 정치이념 및 태도 변수와도 양방향적인 관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이재호, 조긍호, 2014). 후속연구에서는 성격, 기본가치, 정치가치, 도덕기반, 정치성향, 이념 등의 유관개념을 종합하여 변수간의 관계성을 폭넓게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이론모형과 이를 검증한 결과를 현실정치 및 사회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정치적 양극화와 극단화가 주요 사회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 사회과학연구는 이를 정서적 양극화(affective polarization)로 특징짓는다. 이는 이념적인 대립뿐만 아니라 정당정체성에 기인하는 집단극화가 정치 및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임을 지목한다(Finkel et al., 2020; Iyengar et al., 2019). 정치적인 과격화(radicalization) 역시, 단일 가치에 대한 강한 지지(Rigoli, 2023)나 집단 수준에서의 가치 또는 문화적 위협(상징적 위협; Doosje et al., 2013; Obaidi et al., 2023), 집단 규범 및 구성원 간 상호작용(Thomas et al., 2014) 등이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양극화와 극단화, 과격화에 기여하는 심리요인을 밝히는 과정에서 가치요인에 기반한 접근과 집단 수준에서의 분석과 개입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정치가치 지지 유형에 대한 다각적 이해를 바탕으로, 특정 가치만을 신봉하거나, 과격한 행동규범이나 리더십이 우세하거나, 또는 개별 유형에 따라 정당정체성 수준에서 차이가 존재하는지와, 이를 매개로 정서적 양극화와 같은 결과가 예측되는지를 탐색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확실성의 증가나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같은 사회구조적인 요인이 집단역동과 상호작용하는지를 탐색하는 작업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함의 및 잠재적 기여점에 더해, 본 연구의 방법론적 제한점과 이를 보완하는 장래연구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규모 대표표집을 활용하여 본 연구 결과를 반복검증하는 것이 중요한 후속 과제이다. 본 연구는 선거시점에 주요 양당 지지자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타 정당 지지자와 무당층(無黨層)까지 포함하여 정치가치 지지 유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시도하지 않은 성별, 연령, 출신 및 거주지역 등 인구통계특성에 따른 하위집단별 정치가치 지지 유형을 확인하는 것도 흥미로운 시도이다. 잠재프로파일분석 결과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표본수 300~500명 이상이 제안되어(Nylund-Gibson & Choi, 2018; Tein et al., 2020) 본 연구에서도 이를 충족하였으나, 발견된 프로파일(유형)과 표본에서 관찰된 범주변수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대규모 대표 표집이 권장된다. 또한 표본을 확장하여 연구 결과를 반복검증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에서 상정된 일곱 개 정치가치 요인 외에도 서구에서 제안된 경제적 안정이나 환경 등의 요인이 한국에서 정치성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동하는지 검증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대북태도를 진보 가치 요인으로 포함하였는데, 이 외에도 일본, 미국, 중국 등 주요 국제관계에 대한 태도 역시 정치가치 요인으로 포함하여 연구를 확장할 수 있다. 잠재프로파일분석에서는 개념적으로 적절한 기준요인이 많을수록 타당한 결과가 도출되므로(Wurpts & Geiser, 2014), 해석의 간명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정치가치 요인의 추가적인 탐색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조사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정치가치구조 및 정치성향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거나 유관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해석하는 데 제약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체계적인 종단연구를 통해 한국인의 정치가치 중시 양상과 그 변화를 추적하고, 잠재계층/프로파일성장모형 등을 활용하여 변화 추세에서의 차이와 이러한 차이를 예측하는 요인을 탐색할 수 있다. 이때, 앞서 논한 정치가치 요인에 대한 일반인식이 전체 모집단과 하위 사회범주에서 달라지는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가치를 점화하거나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예시화)하는 등의 조작을 통해(Maio, Hahn et al., 2009; Maio, Pakizeh et al., 2009) 정치가치와 태도 및 행동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가치 중시 양상이 본 연구에서는 준거로 상정했던 자기명명식 정치성향,

정치이념, 현안태도 등과 순환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을 가능성 역시 고려할 수 있다.

저자소개

이하연은 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집단 및 공동체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두고, 공감, 고정관념 및 편견,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집단행동, 남북한 관계와 평화, 정치태도 및 행동 등에 관해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다.

최훈석은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집단 과정 및 집단 간 관계를 연구한다. 최근에는 집단주의 가치와 독립적 자기의 시너지 모형을 적용하여 집단 효과성, 집단 간 화해와 갈등해소, 집단에서 의(義)와 충(忠)의 발현, 개인과 집단의 공동번영 등의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박주화는 북한대학원대학교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심리학적 관점에서 한반도 문제를 연구한다. 특히 북핵 문제, 독자적핵무장, 통일, 평화 등과 같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국민들의 태도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지영은 성균관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머징 미디어 효과를 연구한다. 특히 감정을 중심으로, AI・딥페이크・가상현실 등 미디어 기술 환경에서 이용자의 인지・정서적 반응과 설득 및 오정보 처리 과정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비환 (2018). 개인적 자유에서 사회적 자유로: 어떤 자유,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김연신, 최한나 (2009). Schwartz의 보편적 가치 이론의 적용 타당성 연구: 한국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1), 1-16. http://doi.org/10.21193/kjspp.2009.23.1.001

김일영 (2006). 한국에서 보수와 진보의 의미 변화와 현위상: '뉴라이트', '뉴레프트' 그리고 자유주의. 철학연구, 100, 25-57.

김현정, 박영옥, 박상희 (2015). 유권자의 기본적인 심리적 특성들과 정치적 태도, 후보 선택에 관한 경로모형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9(4), 103-132. http://doi.org/10.21193/kjspp.2015.29.4.006

강원택 (2004). 남남갈등의 이념적 특성에 대한 경험적 분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편). 남남갈등 진단 및 해소방안 (pp. 55-100). 경남대학교출판부.

박상훈 (2023, 7월). 한국의 정치 양극화: 유형론적 특징 13가지. 국회미래연구원 Futures Brief, 23(9), 1-4.

박주화, 김갑식, 민태은, 윤광일, 지병근, 구본상 (2022). KINU 통일의식조사 2022. 통일연구원.

윤광일 (2017).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 기본 심리특성의 영향: 가치와 정치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선거연구, 1(8), 5-35. http://doi.org/10.23018/nec.2017.1.8.001

윤성이, 이민규 (2011). 한국사회 이념측정의 재구성. 의정연구, 17(3), 63-82.

이상신, 민태은, 윤광일, 구본상, Flori, A., & Milani, M. (2023). KINU 통일의식조사 2023: 한국의 자체적 핵보유 가능성과 여론. 통일연구원.

이재호, 조긍호 (2014). 정치성향에 따른 도덕판단기준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1), 1-26. http://doi.org/10.21193/kjspp.2014.28.1.001

이하연, 최훈석, 권영미, 박주화 (2021). 사회적 신념 및 남북 통일에 대한 태도, 통일정책 지지 간의 관계: 조절 및 매개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5(4), 27-47. http://doi.org/10.21193/kjspp.2021.35.4.002

이항우 (2011). 이념의 과잉 - 한국 보수세력의 사회정치 담론 전략(2005~2006년, 2008~ 2009년). 경제와사회, 89, 217-268.

이항우 (2012). 정치의 빈곤: 한국 진보개혁 사회정치 담론 실천의 성격(2005-6년, 2008-9년). 한국사회학, 46(1), 156-193.

정은경, 손영우 (2011). 진보와 보수의 도덕적 가치 판단의 차이: 간통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3), 727-741.

중앙일보 (2022). 2022선택 후보자.국민 정책 및 가치관 조사. 중앙일보.

전명심, 이영선 (2023). 대학생의 우익권위주의, 사회지배지향성과 제노포비아와의 관계: 비인간화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7(4), 511-530. http://doi.org/10.21193/kjspp.2023.37.4.002

최석만, 국민호, 박태진, 한규석 (1991). 한국에서의 진보-보수적 태도의 구조와 유형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학, 24(2), 83-102.

최정원, 이영호 (2014). 개정된 가치묘사질문지(PVQ-R) 한국판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3(3), 553-590.

한정훈 (2016). 한국 유권자의 이념성향: 통일의 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사례분석. 한국정치학회보, 50(4), 105-126. http://doi.org/10.18854/kpsr.2016.50.4.005

홍기원, 이종택 (2010). 한국 성인의 이념적 지형과 심리적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24(2), 1-25.

Altemeyer, B. (1998). The other "authoritarian personality."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0, pp. 47-92). Academic Press. https://doi.org/10.1016/S0065-2601(08)60382-2

Ashton, M. C., Danso, H. A., Maio, G. R., Esses, V. M., Bond, M. H., & Keung, D. K. Y. (2005). Two dimensions of political attitudes and their individual difference correlates: A cross-cultural perspective. In R. M. Sorrentino, D. Cohen, J. M. Olson, & M. P. Zanna (Eds.), *Culture and social behavior: The Ontario symposium* (Vol. 10, pp. 1-29). Psychology Press.

Bai, H. (2024). The multiple-matching perspective on value versus identity: Investigating how political ideology and party identity contribute to citizens' support for political candidat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50*(1), 58-77. https://doi.org/10.1177/01461672221121381

Braithwaite, V. (1997). Harmony and security value orientations in political evalu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4), 401-414. https://doi.org/10.1177/0146167297234006

Braithwaite, V. (1998). The value orientations underlying liberalism-conservat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5*(3), 575-589. https://doi.org/10.1016/S0191-8869(98)00111-1

Caprara, G. V., Schwartz, S., Capanna, C., Vecchione, M., & Barbaranelli, C. (2006). Personality and politics: Values, traits, and political choice. *Political Psychology*, *27*(1), 1-28. https://doi.org/10.1111/j.1467-9221.2006.00447.x

Caprara, G. V., & Vecchione, M. (2018). On the left and right ideological divide: Historical accounts and contemporary perspectives. *Political Psychology*, *39*(S1), 49-83. https://doi.org/10.1111/pops.12476

Caprara, G. V., Vecchione, M., Schwartz, S. H., Schoen, H., Bain, P. G., Silvester, J., Cieciuch, J., Pavlopoulos, V., Bianchi, G., Kirmanoglu, H., Baslevent, C., Mamali, C., Manzi, J., Katayama, M., Posnova, T., Tabernero, C., Torres, C., Verkasalo, M., Lönnqvist, J.-E., . . . Caprara, M. G. (2017). Basic values, ideological

self-placement, and voting: A cross-cultural study. *Cross-Cultural Research: The Journal of Comparative Social Science*, *51*(4), 388-411. https://doi.org/10.1177/1069397117712194

Choma, B. L., Hafer, C. L., Dywan, J., Segalowitz, S. J., & Busseri, M. A. (2012). Political liberalism and political conservatism: Functionally independen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3*(4), 431-436. https://doi.org/10.1016/j.paid.2012.04.012

Conover, P. J., & Feldman, S. (1981). The origins and meaning of liberal/conservative self-identification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5*(4), 617-645. https://doi.org/10.2307/2110756

Dimdins, G., Montgomery, H., & Sandgren, M. (2023). Worldviews and values as bases for political orientations. *International Review of Social Psychology*, *36*(1), Article 1-16. https://doi.org/10.5334/irsp.741

Doosje, B., Loseman, A., & van den Bos, K. (2013). Determinants of radicalization of Islamic youth in the Netherlands: Personal uncertainty, perceived injustice, and perceived group threat. *Journal of Social Issues*, *69*(3), 586-604. https://doi.org/10.1111/josi.12030

Duckitt, J. (2001). A dual-process cognitive-motivational theory of ideology and prejudice.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3, pp. 41-113). Academic Press. https://doi.org/10.1016/S0065-2601(01)80004-6

Eriksson, K. (2018). Republicans value agency, Democrats value communion. *Social Psychology Quarterly*, *81*(2), 173-184. https://doi.org/10.1177/0190272518771060

Feldman, S., & Johnston, C. (2014). Understanding the determinants of political ideology: Implications of structural complexity. *Political Psychology*, *35*(3), 337-358. https://doi.org/10.1111/pops.12055

Finkel, E. J., Bail, C. A., Cikara, M., Ditto, P. H., Iyengar, S., Klar, S., Mason, L., McGrath, M. C., Nyhan, B., Rand, D. G., Skitka, L. J., Tucker, J. A., Van Bavel, J. J., Wang, C. S., & Druckman, J. N. (2020). Political sectarianism in America. *Science*, *370*(6516), 533-536. https://doi.org/10.1126/science.abe1715

Goren, P., Schoen, H., Reifler, J., Scotto, T., & Chittick, W. (2016). A unified theory of value-based reasoning and U.S. public opinion. *Political Behavior*, *38*(4), 977-997. https://doi.org/10.1007/s11109-016-9344-x

Graham, J., Haidt, J., & Nosek, B. A. (2009). Liberals and conservatives rely on different sets of moral found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6*(5), 1029-1046. https://doi.org/10.1037/a0015141

Greene, S. (2004). Social identity theory and party identification. *Social Science Quarterly*, *85*(1), 136-153. https://doi.org/10.1111/j.0038-4941.2004.08501010.x

Haidt, J., & Graham, J. (2007). When morality opposes justice: Conservatives have moral intuitions that liberals may not recognize. *Social Justice Research*, *20*(1), 98-116. https://doi.org/10.1007/s11211-007-0034-z

Haidt, J., Graham, J., & Joseph, C. (2009). Above and below left-right: Ideological narratives and moral foundations. *Psychological Inquiry*, *20*(2-3), 110-119. https://doi.org/10.1080/10478400903028573

Henningham, J. P. (1996). A 12-item scale of social conservat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4), 517-519. https://doi.org/10.1016/0191-8869(95)00192-1

Ho, A. K., Sidanius, J., Kteily, N., Sheehy-Skeffington, J., Pratto, F., Henkel, K. E., Foels,

R., & Stewart, A. L. (2015). The nature of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Theorizing and measuring preferences for intergroup inequality using the new SDO7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9*(6), 1003-1028. https://doi.org/10.1037/pspi0000033

Iyengar, S., Lelkes, Y., Levendusky, M., Malhotra, N., & Westwood, S. J. (2019). The origins and consequences of affective polarization in the United State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22*, 129-146. https://doi.org/10.1146/annurev-polisci-051117-073034

Jost, J. T. (2006). The end of the end of ideology. *American Psychologist*, *61*(7), 651-670. https://doi.org/10.1037/0003-066X.61.7.651

Jost, J. T., Federico, C. M., & Napier, J. L. (2009). Political ideology: Its structure, functions, and elective affiniti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 307-337.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60.110707.163600

Jost, J. T., Glaser, J., Kruglanski, A. W., & Sulloway, F. J. (2003). Political conservatism as motivated social cognition. *Psychological Bulletin*, *129*(3), 339-375. https://doi.org/10.1037/0033-2909.129.3.339

Jost, J. T., Nosek, B. A., & Gosling, S. D. (2008). Ideology: Its resurgence in social, personality, and political psychology.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3*(2), 126-136. https://doi.org/10.1111/j.1745-6916.2008.00070.x

Laursen, B., & Hoff, E. (2006). Person-centered and variable-centered approaches to longitudinal data. *Merrill-Palmer Quarterly*, *52*(3), 377-389. https://doi.org/10.1353/mpq.2006.0029

Maio, G. R., Hahn, U., Frost, J.-M., & Cheung, W.-Y. (2009). Applying the value of equality unequally: Effects of value instantiations that vary in typic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4), 598-614. https://doi.org/10.1037/a0016683

Maio, G. R., Pakizeh, A., Cheung, W.-Y., & Rees, K. J. (2009). Changing, priming, and acting on values: Effects via motivational relations in a circular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4), 699-715. https://doi.org/10.1037/a0016420

McCann, J. A. (1997). Electoral choices and core value change: The 1992 presidential campaig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1*(2), 564-583. https://doi.org/10.2307/2111777

Nilsson, A., Montgomery, H., Dimdins, G., Sandgren, M., Erlandsson, A., & Taleny, A. (2020). Beyond 'liberals' and 'conservatives': Complexity in ideology, moral intuitions, and worldview among Swedish voter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34*(3), 448-469. https://doi.org/10.1002/per.2249

Nunnally, J. C., & Bernstein, I. H. (1994). *Psychometric theory* (3rd ed.) McGraw-Hill.

Nylund-Gibson, K., & Choi, A. Y. (2018). Ten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latent class analysis. *Translational Issues in Psychological Science*, *4*(4), 440-461. https://doi.org/10.1037/tps0000176

Obaidi, M., Anjum, G., Bierwiaczonek, K., Dovidio, J. F., Ozer, S., & Kunst, J. R. (2023). Cultural threat perceptions predict violent extremism via need for cognitive closure. *PNA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20*(20), 1-12. https://doi.org/10.1073/pnas.2213874120

Piurko, Y., Schwartz, S. H., & Davidov, E. (2011). Basic personal values and the meaning of left right political orientations in 20 countries. *Political Psychology*, *32*(4), 537-561. https://doi.org/10.1111/j.1467-9221.2011.00828.x

Pratto, F., Sidanius, J., Stallworth, L. M., & Malle, B. F. (1994).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 personality variable predicting social and political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4), 741-763. https://doi.org/10.1037/0022-3514.67.4.741

Rigoli, F. (2023). Political extremism and a generalized propensity to discriminate among values. *Political Psychology*, *44*(2), 301-318. https://doi.org/10.1111/pops.12839

Roccas, S., & Sagiv, L. (Eds.). (2017). *Values and behavior: Taking a cross cultural perspective*.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https://doi.org/10.1007/978-3-319-56352-7

Rokeach, M. (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Free Press.

Satherley, N., Sibley, C. G., & Osborne, D. (2021). Ideology before party: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right‐wing authoritarianism temporally precede political party support.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60*(2), 509-523. https://doi.org/10.1111/bjso.12414

Schwartz, S. H. (1992). Universals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Theoretical advances and empirical tests in 20 countries.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5, pp. 1-65). Academic Press. https://doi.org/10.1016/S0065-2601(08)60281-6

Schwartz, S. H. (2017). The refined theory of basic values. In S. Roccas & L. Sagiv (Eds.), *Values and behavior: Taking a cross cultural perspective* (pp. 51-72).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https://doi.org/10.1007/978-3-319-56352-7_3

Schwartz, S. H., & Cieciuch, J. (2022). Measuring the refined theory of individual values in 49 cultural groups: Psychometrics of the Revised Portrait Value Questionnaire. *Assessment*, *29*(5), 1005-1019. https://doi.org/10.1177/1073191121998760

Schwartz, S. H., Caprara, G. V., & Vecchione, M. (2010). Basic personal values, core political values, and voting: A longitudinal analysis. *Political Psychology*, *31*(3), 421-452. https://doi.org/10.1111/j.1467-9221.2010.00764.x

Schwartz, S. H., Caprara, G. V., Vecchione, M., Bain, P., Bianchi, G., Caprara, M. G., Cieciuch, J., Kirmanoglu, H., Baslevent, C., Lönnqvist, J.-E., Mamali, C., Manzi, J., Pavlopoulos, V., Posnova, T., Schoen, H., Silvester, J., Tabernero, C., Torres, C., Verkasalo, M., . . . Zaleski, Z. (2014). Basic personal values underlie and give coherence to political values: A cross national study in 15 countries. *Political Behavior*, *36*(4), 899-930. https://doi.org/10.1007/s11109-013-9255-z

Skitka, L. J., Mullen, E., Griffin, T., Hutchinson, S., & Chamberlin, B. (2002). Dispositions, scripts, or motivated correction? Understanding ideological differences in explanations for social proble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2), 470-487. https://doi.org/10.1037/0022-3514.83.2.470

Spurk, D., Hirschi, A., Wang, M., Valero, D., & Kauffeld, S. (2020). Latent profile analysis: A review and "how to" guide of its application within vocational behavior resear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20*, Article 103445. https://doi.org/10.1016/j.jvb.2020.103445

Tein, J.-Y., Coxe, S., & Cham, H. (2013). Statistical power to detect the correct number of classes in latent profile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0*(4), 640-657. https://doi.org/10.1080/10705511.2013.824781

Thomas, E. F., McGarty, C., & Louis, W. (2014). Social interaction and psychological pathways to political engagement and extremism.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4*(1), 15-22. https://doi.org/10.1002/ejsp.1988

Vecchione, M., Caprara, G., Dentale, F., & Schwartz, S. H. (2013). Voting and values: Reciprocal effects over time. *Political Psychology*, *34*(4), 465-485. https://doi.org/10.1111/pops.12011

Vecchione, M., Schwartz, S. H., Caprara, G. V., Schoen, H., Cieciuch, J., Silvester, J., Bain, P., Bianchi, G., Kirmanoglu, H., Baslevent, C., Mamali, C., Manzi, J., Pavlopoulos, V., Posnova, T., Torres, C., Verkasalo, M., Lönnqvist, J.‐E., Vondráková, E., Welzel, C., & Alessandri, G. (2015). Personal values and political activism: A cross‐national study.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106*(1), 84-106. https://doi.org/10.1111/bjop.12067

Verhulst, B., Hatemi, P. K., & Eaves, L. J. (2012). Disentangling the importance of psychological predispositions and social constructions in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political ideology. *Political Psychology*, *33*(3), 375-393. https://doi.org/10.1111/j.1467-9221.2012.00882.x

Weber, C. R., & Federico, C. M. (2013). Moral foundations and heterogeneity in ideological preferences. *Political Psychology*, *34*(1), 107-126. https://doi.org/10.1111/j.1467-9221.2012.00922.x

Weller, B. E., Bowen, N. K., & Faubert, S. J. (2020). Latent class analysis: A guide to best practice. *Journal of Black Psychology*, *46*(4), 287-311. https://doi.org/10.1177/0095798420930932

Wilson, M. S., & Sibley, C. G. (2013).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right‐wing authoritarianism: Additive and interactive effects on political conservatism. *Political Psychology*, *34*(2), 277-284. https://doi.org/10.1111/j.1467-9221.2012.00929.x

Wurpts, I. C., & Geiser, C. (2014). Is adding more indicators to a latent class analysis beneficial or detrimental? Results of a Monte-Carlo study. *Frontiers in Psychology*, *5*, Article 920. https://doi.org/10.3389/fpsyg.2014.00920

Zakrisson, I. (2005). Construction of a short version of the right-wing authoritarianism (RWA)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9*(5), 863-872. https://doi.org/10.1016/j.paid.2005.02.026

1 차원고접수 : 2025. 10. 10.
수정원고접수 : 2026. 01. 13.
최종게재결정 : 2026. 01. 21.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26, Vol. 40, No. 2, 111-147
https://doi.org/10.21193/kjspp.2026.40.2.002

Regular Article

Which Values Are Supported by 'Liberals' and 'Conservatives' in Korea?: A Latent Profile Analysis on Political Values Endorsement

Hayeon Lee[1] **Hoon-Seok Choi**[2] **Juhwa Park**[3] **Jiyoung Lee**[2]

[1]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2]Sungkyunkwan University
[3]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Social and political psychology research has demonstrated individuals' political stances through self-reported political orientations (liberal-conservative), partisan identity, issue-focused political attitudes, and more. The current study proposes that a value-driven approach has a unique contribution to understanding individuals' political orientation as well as complicated modern political situations, beyond a conceptual distinction between liberals and conservatives. We developed a conceptual model of political values for the Korean political context based on a theoretical background and explored the patterns of endorsement of political values among Korean voters in 2024. Latent profile analyses showed five different types of Korean voters, each representing unique patterns supporting seven political values, followed by their self-attributed political orientations, ideologies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right-wing authoritarianism), and attitudes toward current political issues in Korea. These results suggest the need to understand Koreans' political orientation with a more nuanced approach rather than a liberal-conservative dichotomy. We discuss the implications of our findings regarding political and affective polarization in Korea and future directions of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on political attitudes and behaviors.

Key words : political values, liberal-conservative, political orientation, ideology, affective polarization

부록 Ⅰ: 정치가치 잠재프로파일에서 일곱 개 가치요인 간 차이검증 결과

(1) 반복측정 일원변량분석: 정치가치 유형(프로파일) 내 일곱 개 가치요인 간 차이 검증

표 1-1. 진보-북한우호 유형 내 정치가치 요인 간 평균 차이 검증 결과(n = 48)

Schwartz 정치가치		M_{diff}	SE	p	95% CI	
					LLCI	ULCI
법과질서	전통적도덕관	0.67	0.18	.008	0.11	1.24
	자유시장주의	0.30	0.20	1.000	-0.33	0.93
	애국주의	0.98	0.16	< .001	0.47	1.49
	평등	-1.71	0.13	< .001	-2.14	-1.28
	시민자유	-1.57	0.19	< .001	-2.16	-0.98
	대북태도	-1.47	0.19	< .001	-2.06	-0.87
전통적도덕관	자유시장주의	-0.38	0.16	.571	-0.90	0.15
	애국주의	0.31	0.15	1.000	-0.18	0.79
	평등	-2.38	0.13	< .001	-2.79	-1.98
	시민자유	-2.24	0.13	< .001	-2.66	-1.82
	대북태도	-2.14	0.15	< .001	-2.63	-1.64
자유시장주의	애국주의	0.68	0.16	.002	0.18	1.18
	평등	-2.01	0.14	< .001	-2.47	-1.55
	시민자유	-1.87	0.14	< .001	-2.31	-1.43
	대북태도	-1.76	0.17	< .001	-2.30	-1.23
애국주의	평등	-2.69	0.11	< .001	-3.03	-2.35
	시민자유	-2.55	0.14	< .001	-3.00	-2.10
	대북태도	-2.44	0.17	< .001	-2.98	-1.91
평등	시민자유	0.14	0.11	1.000	-0.21	0.49
	대북태도	0.24	0.14	1.000	-0.21	0.70
시민자유	대북태도	0.10	0.15	1.000	-0.38	0.59

주. 참가자 내 주효과 $F(6, 282) = 112.51$, $p < .001$, $\eta^2_p = .71$; 사후 검정: Bonferroni로 시행함.

표 1-2. 진보-북한비우호 유형 내 정치가치 요인 간 평균 차이 검증 결과(n = 68)

Schwartz 정치가치		M_{diff}	SE	p	95% CI	
					LLCI	ULCI
법과질서	전통적도덕관	1.28	0.12	< .001	0.90	1.66
	자유시장주의	0.53	0.12	< .001	0.16	0.90
	애국주의	1.49	0.15	< .001	1.03	1.95
	평등	-0.69	0.12	< .001	-1.07	-0.31
	시민자유	-0.95	0.11	< .001	-1.30	-0.59
	대북태도	0.78	0.16	< .001	0.29	1.26
전통적도덕관	자유시장주의	-0.75	0.14	< .001	-1.18	-0.32
	애국주의	0.21	0.14	1.000	-0.22	0.64
	평등	-1.97	0.10	< .001	-2.30	-1.64
	시민자유	-2.23	0.11	< .001	-2.58	-1.87
	대북태도	-0.51	0.13	.004	-0.91	-0.10
자유시장주의	애국주의	0.96	0.17	< .001	0.44	1.48
	평등	-1.22	0.12	< .001	-1.61	-0.84
	시민자유	-1.48	0.11	< .001	-1.81	-1.14
	대북태도	0.25	0.17	1.000	-0.29	0.78
애국주의	평등	-2.18	0.12	< .001	-2.57	-1.79
	시민자유	-2.44	012	< .001	-2.83	-2.05
	대북태도	-0.72	0.15	< .001	-1.18	-0.26
평등	시민자유	-0.26	0.10	.134	-0.54	0.03
	대북태도	1.47	0.14	< .001	1.03	1.90
시민자유	대북태도	1.72	0.15	< .001	1.25	2.19

주. 참가자 내 주효과 $F(6, 402) = 102.15$, $p < .001$, $\eta^2_p = .60$; 사후 검정: Bonferroni로 시행함.

표 1-3. 중도 유형 내 정치가치 요인 간 평균 차이 검증 결과(n = 266)

Schwartz 정치가치		M_{diff}	SE	p	95% CI	
					LLCI	ULCI
법과질서	전통적도덕관	0.77	0.06	< .001	0.60	0.95
	자유시장주의	0.42	0.06	< .001	0.25	0.59
	애국주의	0.77	0.05	< .001	0.60	0.94
	평등	0.21	0.06	.005	0.04	0.37
	시민자유	-0.32	0.07	< .001	-0.51	-0.14
	대북태도	0.97	0.05	< .001	0.74	1.20
전통적도덕관	자유시장주의	-0.36	0.05	< .001	-0.51	-0.20
	애국주의	-0.00	0.05	1.000	-0.15	0.15
	평등	-0.57	0.05	< .001	-0.73	-0.40
	시민자유	-1.09	0.06	< .001	-1.29	-0.90
	대북태도	0.20	0.06	.040	0.00	0.40
자유시장주의	애국주의	0.36	0.05	< .001	0.19	0.52
	평등	-0.21	0.05	.002	-0.37	-0.05
	시민자유	-0.74	0.05	< .001	-0.90	-0.58
	대북태도	0.56	0.06	< .001	0.37	0.75
애국주의	평등	-0.57	0.05	< .001	-0.73	-0.40
	시민자유	-1.09	0.06	< .001	-1.29	-0.90
	대북태도	0.20	0.06	.035	0.01	0.40
평등	시민자유	-0.53	0.05	< .001	-0.68	-.038
	대북태도	0.77	0.06	< .001	0.58	0.95
시민자유	대북태도	1.29	0.07	< .001	1.08	1.51

주. 참가자 내 주효과 $F(6, 1590) = 128.34$, $p < .001$, $\eta^2_p = .33$; 사후 검정: Bonferroni로 시행함.

표 1-4. 보수-평등중시 유형 내 정치가치 요인 간 평균 차이 검증 결과(n = 44)

Schwartz 정치가치		M_{diff}	SE	p	95% CI	
					LLCI	ULCI
법과질서	전통적도덕관	0.77	0.15	< .001	0.30	1.24
	자유시장주의	1.33	0.16	< .001	0.82	1.84
	애국주의	0.89	0.17	< .001	0.36	1.43
	평등	0.39	0.11	.031	0.02	0.75
	시민자유	0.02	0.11	1.000	-0.34	0.38
	대북태도	2.64	0.19	< .001	2.02	3.27
전통적도덕관	자유시장주의	0.56	0.18	.076	-0.03	1.15
	애국주의	0.12	0.21	1.000	-0.56	0.80
	평등	-0.39	0.15	.340	-0.88	0.11
	시민자유	-0.75	0.17	.001	-1.28	-0.22
	대북태도	1.87	0.18	< .001	1.29	2.45
자유시장주의	애국주의	-0.44	0.19	.511	-1.05	0.17
	평등	-0.95	0.16	< .001	-1.46	-0.44
	시민자유	-1.31	0.15	< .001	-1.80	-0.82
	대북태도	1.31	0.20	< .001	0.66	1.96
애국주의	평등	-0.51	0.15	.031	-0.99	-0.02
	시민자유	-0.87	0.17	< .001	-1.43	-0.31
	대북태도	1.75	0.17	< .001	1.20	2.30
평등	시민자유	-0.36	0.13	.137	-0.77	0.05
	대북태도	2.26	0.15	< .001	1.76	2.75
시민자유	대북태도	2.62	0.19	< .001	2.01	3.24

주. 참가자 내 주효과 $F(6, 258) = 61.35$, $p < .001$, $\eta^2_p = .59$; 사후 검정: Bonferroni로 시행함.

표 1-5. 보수-평등비중시 유형 내 정치가치 요인 간 평균 차이 검증 결과(n = 22)

Schwartz 정치가치		M_{diff}	SE	p	95% CI	
					LLCI	ULCI
법과질서	전통적도덕관	1.00	0.32	.115	-0.12	2.12
	자유시장주의	0.06	0.23	1.000	-0.72	0.84
	애국주의	1.61	0.23	.003	0.28	1.84
	평등	2.26	0.18	< .001	1.63	2.88
	시민자유	0.15	0.37	1.000	-1.14	1.44
	대북태도	2.52	0.28	< .001	1.56	3.48
전통적도덕관	자유시장주의	-0.94	0.34	.259	-2.12	0.25
	애국주의	0.06	0.34	1.000	-1.12	1.25
	평등	1.26	0.32	.014	0.17	2.35
	시민자유	-0.85	0.37	.707	-2.14	0.44
	대북태도	1.52	0.33	.004	0.36	2.67
자유시장주의	애국주의	1.00	0.29	.047	0.01	1.99
	평등	2.20	0.21	< .001	1.46	2.93
	시민자유	0.09	0.32	1.000	-1.01	1.20
	대북태도	2.46	0.28	< .001	1.49	3.42
애국주의	평등	1.20	0.25	.002	0.33	2.06
	시민자유	-0.91	0.37	.495	-2.19	0.38
	대북태도	1.46	0.30	.002	0.43	2.48
평등	시민자유	-2.11	0.32	< .001	-3.21	-1.00
	대북태도	0.26	0.21	1.000	-0.48	1.00
시민자유	대북태도	2.36	0.36	< .001	1.14	3.59

주. 참가자 내 주효과 $F(6, 126) = 23.69$, $p < .001$, $\eta^2_p = .53$; 사후 검정: Bonferroni로 시행함.

(2) 개별 가치요인 점수에 대한 t검증 (척도 중간점과 일곱 개 가치요인 점수와의 차이 검증)

표 2-1. 진보-북한우호 유형에서 정치가치 점수에 대한 단일표본 *t*검증(n = 48)

Schwartz 정치가치	*M*	*SD*	*t*(47)	*p*
법과질서	3.13	0.85	-3.07	.004
전통적도덕관	2.45	0.82	-8.85	< .001
자유시장주의	4.83	0.49	18.81	< .001
애국주의	2.83	0.84	-5.54	< .001
평등	4.69	0.73	11.38	< .001
시민자유	2.15	0.72	-13.01	< .001
대북태도	4.59	0.93	8.12	< .001

주. 검정값(척도 중간점) = 3.5

표 2-2. 진보-북한비우호 유형에서 정치가치 점수에 대한 단일표본 *t*검증(n = 68)

Schwartz 정치가치	*M*	*SD*	*t*(67)	*p*
법과질서	4.47	0.71	11.21	< .001
전통적도덕관	3.19	0.70	-3.68	< .001
자유시장주의	5.16	0.49	27.87	< .001
애국주의	3.94	0.86	4.16	< .001
평등	5.41	0.56	28.22	< .001
시민자유	2.98	0.88	-4.91	< .001
대북태도	3.69	1.03	1.53	.130

`주. 검정값(척도 중간점) = 3.5

표 2-3. 중도 유형에서 정치가치 점수에 대한 단일표본 *t*검증(n = 266)

Schwartz 정치가치	*M*	*SD*	*t*(265)	*p*
법과질서	4.02	0.74	11.57	< .001
전통적도덕관	3.25	0.70	-5.83	< .001
자유시장주의	3.82	0.50	10.38	< .001
애국주의	3.61	0.62	2.79	.006
평등	4.34	0.69	19.94	< .001
시민자유	3.25	0.70	-5.79	< .001
대북태도	3.05	0.85	-8.63	< .001

주. 검정값(척도 중간점) = 3.5

표 2-4. 보수-평등중시 유형에서 정치가치 점수에 대한 단일표본 *t*검증(n = 44)

Schwartz 정치가치	*M*	*SD*	*t*(43)	*p*
법과질서	5.20	0.54	20.98	< .001
전통적도덕관	4.43	0.80	7.77	< .001
자유시장주의	4.82	0.56	15.52	< .001
애국주의	3.87	0.94	2.61	.012
평등	5.18	0.64	17.30	< .001
시민자유	4.31	0.91	5.91	< .001
대북태도	2.56	1.00	-6.21	< .001

주. 검정값(척도 중간점) = 3.5

표 2-5. 보수-평등비중시 유형에서 정치가치 점수에 대한 단일표본 *t*검증(n = 22)

Schwartz 정치가치	*M*	*SD*	*t*(21)	*p*
법과질서	4.30	0.92	4.10	.001
전통적도덕관	3.30	1.28	-0.72	.480
자유시장주의	2.05	0.54	-12.69	< .001
애국주의	4.24	0.98	3.55	.002
평등	4.15	1.39	2.19	.040
시민자유	3.24	1.15	-1.05	.304
대북태도	1.79	0.73	-10.98	< .001

주. 검정값(척도 중간점) = 3.5

부록 Ⅱ: 정치가치 잠재프로파일 간 지지 정당 및 자기명명식 진보-보수에서의 차이

표 1. 지지 정당에 대한 정치가치 유형(프로파일) 간 차이 검증: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n = 448)

예측변수	B	SE	Wald χ^2	p	Exp(B)	95% CI for Exp(B)	
						LLCI	ULCI
진보-북한우호	4.36	0.88	24.35	< .001	78.20	13.84	441.81
진보-북한비우호	2.25	0.58	15.08	< .001	9.44	3.04	29.34
보수-평등중시	0.91	0.52	2.99	.084	2.47	0.89	6.90
보수-평등비중시	0.13	0.62	0.04	.839	1.13	0.34	3.79
중도	-	-	-	-	-	-	-
Model χ^2 (df = 4)					90.67***		
Nagelkerke R^2					.24		

주. 지지 정당(1 = 국민의힘, 2 = 더불어민주당); *** p < .001.

표 2. 자기명명식 정치성향에 대한 정치가치 유형(프로파일) 간 차이 검증: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n = 448)

자기명명식 정치성향	예측변수	B	SE	Wald χ^2	p	Exp(B)	95% CI for Exp(B)	
							LLCI	ULCI
진보	진보-북한우호	2.54	0.97	6.84	.009	12.67	1.89	84.97
	진보-북한비우호	1.97	0.93	4.53	.033	7.17	1.17	43.97
	보수-평등중시	0.64	0.88	0.53	.465	1.90	0.34	10.68
	보수-평등비중시	0.80	0.98	0.66	.415	2.22	0.33	15.18
	중도	-	-	-	-	-	-	-
보수	진보-북한우호	-1.79	0.85	4.40	.036	0.17	0.03	0.89
	진보-북한비우호	-1.31	0.69	3.61	.057	0.27	0.07	1.04
	보수-평등중시	-1.13	0.58	3.82	.051	0.32	0.10	1.00
	보수-평등비중시	-0.36	0.68	0.29	.592	0.69	0.18	2.64
	중도	-	-	-	-	-	-	-
Model χ^2 (df = 8)						84.34***		
Nagelkerke R^2						.19		

주. 자기명명식 정치성향(-1 = 진보, 0 = 중도, 1 = 보수), 준거변수 참조집단: 중도; *** p < .001.

부록 Ⅲ: 정치가치 잠재프로파일 간 정치이념 및 현안 기반 정치태도에서의 사후검증 결과

표 1. 정치가치 유형(프로파일) 간 사회지배경향성 차이: Scheffé 사후검증 결과(n = 448)

유형(프로파일) 명		M_{diff}	SE	p	95% CI	
					LLCI	ULCI
진보-북한우호	진보-북한비우호	-0.21	0.10	.424	-0.53	0.12
	중도	-0.71	0.09	< .001	-0.98	-0.44
	보수-평등중시	-0.57	0.12	< .001	-0.93	-0.21
	보수-평등비중시	-1.23	0.14	< .001	-1.67	-0.79
진보-북한비우호	중도	-0.50	0.08	< .001	-0.74	-0.27
	보수-평등중시	-0.36	0.11	.024	-0.69	-0.03
	보수-평등비중시	-1.02	0.14	< .001	-1.44	-0.60
중도	보수-평등중시	0.14	0.09	.651	-0.14	0.42
	보수-평등비중시	-0.52	0.12	.002	-0.90	-0.14
보수-평등중시	보수-평등비중시	-0.66	0.14	< .001	-1.11	-0.21

표 2. 정치가치 유형(프로파일) 간 우익권위주의 차이: Scheffé 사후검증 결과(n = 448)

유형(프로파일) 명		M_{diff}	SE	p	95% CI	
					LLCI	ULCI
진보-북한우호	진보-북한비우호	-1.25	0.16	< .001	-1.73	-0.77
	중도	-1.08	0.13	< .001	-1.48	-0.68
	보수-평등중시	-2.05	0.17	< .001	-2.58	-1.52
	보수-평등비중시	-1.11	0.21	< .001	-1.76	-0.45
진보-북한비우호	중도	0.17	0.11	.696	-0.18	0.51
	보수-평등중시	-0.81	0.16	< .001	-1.30	-0.31
	보수-평등비중시	0.14	0.20	.975	-0.48	0.76
중도	보수-평등중시	-0.97	0.13	< .001	-1.39	-0.56
	보수-평등비중시	-0.03	0.18	1.000	-0.59	0.54
보수-평등중시	보수-평등비중시	0.95	0.21	.001	0.28	1.61

표 3. 정치가치 유형(프로파일) 간 경제 정치태도 차이: Scheffé 사후검증 결과(n = 448)

유형(프로파일) 명		M_{diff}	SE	p	95% CI	
					LLCI	ULCI
진보-북한우호	진보-북한비우호	-0.68	0.19	.014	-1.28	-0.09
	중도	-1.35	0.16	< .001	-1.84	-0.85
	보수-평등중시	-1.74	0.21	< .001	-2.40	-1.09
	보수-평등비중시	-2.59	0.26	< .001	-3.41	-1.78
진보-북한비우호	중도	-0.67	0.14	< .001	-1.10	-0.24
	보수-평등중시	-1.06	0.20	< .001	-1.67	-0.45
	보수-평등비중시	-1.91	0.25	< .001	-2.69	-1.14
중도	보수-평등중시	-0.40	0.17	.227	-0.91	0.12
	보수-평등비중시	-1.24	0.23	< .001	-1.94	-0.54
보수-평등중시	보수-평등비중시	-0.85	0.27	.040	-1.67	-0.02

표 4. 정치가치 유형(프로파일) 간 외교 정치태도 차이: Scheffé 사후검증 결과(n = 448)

유형(프로파일) 명		M_{diff}	SE	p	95% CI	
					LLCI	ULCI
진보-북한우호	진보-북한비우호	-0.33	0.20	.580	-0.95	0.28
	중도	-1.38	0.16	< .001	-1.89	-0.87
	보수-평등중시	-1.79	0.22	< .001	-2.47	-1.11
	보수-평등비중시	-2.61	0.27	< .001	-3.44	-1.77
진보-북한비우호	중도	-1.04	0.14	< .001	-1.48	-0.60
	보수-평등중시	-1.46	0.20	< .001	-2.08	-0.83
	보수-평등비중시	-2.27	0.26	< .001	-3.07	-1.48
중도	보수-평등중시	-0.41	0.17	.211	-0.94	0.11
	보수-평등비중시	-1.23	0.23	< .001	-1.95	-0.51
보수-평등중시	보수-평등비중시	-0.82	0.27	.065	-1.67	0.03

표 5. 정치가치 유형(프로파일) 간 사회 정치태도 차이: Scheffé 사후검증 결과(n = 448)

유형(프로파일) 명		M_{diff}	SE	p	95% CI	
					LLCI	ULCI
진보-북한우호	진보-북한비우호	-0.56	0.19	.070	-1.14	0.03
	중도	-1.06	0.16	< .001	-1.55	-0.58
	보수-평등중시	-1.70	0.21	< .001	-2.35	-1.06
	보수-평등비중시	-2.19	0.26	< .001	-2.99	-1.39
진보-북한비우호	중도	-0.51	0.14	.008	-0.93	-0.09
	보수-평등중시	-1.15	0.19	< .001	-1.74	-0.55
	보수-평등비중시	-1.63	0.25	< .001	-2.39	-0.87
중도	보수-평등중시	-0.64	0.16	.004	-1.14	-0.13
	보수-평등비중시	-1.12	0.22	< .001	-1.81	-0.44
보수-평등중시	보수-평등비중시	-0.48	0.26	.488	-1.29	0.32